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한·중 완곡 표현 대조 연구

- 신체, 심리 관련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왕 서

한·중 완곡 표현 대조 연구

- 신체, 심리 관련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Euphemism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

- Focusing on Euphemistic Expressions Related to Body
and Psychology -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왕 서

한·중 완곡 표현 대조 연구

- 신체, 심리 관련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왕 서

왕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영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2020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V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2
1.3. 연구 대상 및 방법	10
2. 이론적 배경	12
2.1. 완곡 표현의 개념 및 특징	12
2.2. 완곡 표현의 유형	14
2.3. 완곡 표현과 금기 표현	18
2.4. 완곡 표현과 공손 표현	21
3. 한·중 완곡 표현의 유형별 사용 양상	24
3.1. 신체 관련 완곡 표현	24
3.1.1. 죽음 관련 완곡 표현	24
3.1.2. 질병과 신체장애 관련 완곡 표현	43
3.1.3. 성 관련 완곡 표현	51
3.1.4. 생리적 현상 관련 완곡 표현	59
3.2. 심리 관련 완곡 표현	66
3.2.1. 지적 관련 완곡 표현	66

3.2.2. 요청 관련 완곡 표현	67
3.2.3. 거절 관련 완곡 표현	69
4. 한·중 완곡 표현 대조 분석	72
4.1. 신체 관련 완곡 표현 대조 분석	72
4.2. 심리 관련 완곡 표현 대조 분석	76
4.3. 분석 결과를 통한 문화적 배경 대조 분석	77
5. 결론	80
<참고 문헌>	83

〈표 목차〉

〈표 1〉 중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	6
〈표 2〉 한국어 완곡 표현 유형화	15
〈표 3〉 완곡 표현의 분류	18
〈표 4〉 한국어와 중국어의 죽음 관련 완곡 표현	40
〈표 5〉 한국어와 중국어의 질병 관련 완곡 표현	47
〈표 6〉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체장애 관련 완곡 표현	51
〈표 7〉 한국어와 중국어의 성 관련 완곡 표현	58
〈표 8〉 한국어와 중국어의 생리적 현상 관련 완곡 표현	6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Euphemism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 - Focusing on Euphemistic Expressions Related to Body and Psychology -

WANG RU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Kang Huisuk, Ph.D.

People use euphemism extensively to reduce the psychological burden without hurting the other person's feelings, but it depends on the situation. The euphemistic expression is a universal language phenomenon of mankind and is an expression recognized as one of language etiquette in modern times, which has been born under th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for a long time.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euphemism relating to the taboo expression of two countries and the euphemistic expression that is frequently used in daily life. This studies emphasis the euphemistic expression related to the body, psychology and human beings in term of the contents and classification of euphemistic expression. For accurate and understanding, the cases mentioned mainly refer to dictionaries, books, internet materials, current affairs and other materials that people used frequently in daily life.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 of euphemistic expression between Chinese and Korean are compared and analysed.

This study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In chapter 1, the purpose and necessity are putting forward. Meanwhile,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are discussed, and the object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lso presented.

Chapter 2 explain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phemistic expression based on prior studies. Moreover, it explains the classification basis of the euphemistic expression and reclassification it again. Furthermore, relationship of euphemistic expression and taboo phenomenon are presented.

In chapter 3,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euphemistic expression in Korean and Chinese are illustrated through related examples. Specifically, the physical aspects are divided into death, physical disorders, sex, physiological phenomenon and psychological aspec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dialogue and mental states.

Chapter 4 relies on the analysis in Chapter 3 to reveal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euphemistic expressions, and discuss the reasons related to their cultural background.

In chapter 5, summarising the contents and opinions of this research, thus, pointing out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lassify a large number of euphemistic expression frequently used in Korean and Chinese based on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which illustrat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euphemistic express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 on euphemistic expression related to body and psychology, which are common in any language settings. Since the euphemism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a particular society, this study not only contributes to the expression education as a form of language but also facilitate of the cultural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euphemism, euphemistic expression, Korean, Chinese, cultural background.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는 인간의 생활에서 필수적 요소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표현의 선택에서 대화 참여자의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과 대화 진행 양상에 따른 참여자의 심리적 상태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배경 및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표현은 상대방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에둘러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원되는 것이 바로 완곡 표현이다.

완곡 표현은 인류 보편적인 언어 현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해당 언어의 사회문화적 영향 속에서 생겨났으며, 현대에는 언어 예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표현이다. 완곡 표현은 상대방이 느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저지하는 언어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오송초(吳松初, 1996: 59)에 따르면 완곡 표현은 한 국가나 사회, 지역뿐 아니라 그 사회의 도덕, 민속, 정치, 사회 심리 등의 문화 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잘못된 완곡 표현의 사용은 상대방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화 상황에 맞지 않는 완곡 표현을 사용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는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황뿐 아니라 참여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오랜 시간 동안 이어 온 국가이다. 문화적으로 동아시아에 전파된 중국의 유학(儒學)과 한자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에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중국인에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으로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여행 또는 유학을 오는 중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992년에 체결한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문화 교류 또한 빈번해졌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완곡 표현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일은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마찰을 줄이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중 두 나라의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완곡 표현을 유형화하고 그 결과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의 완곡 표현이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어느 언어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심리와 관련된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두 나라의 언어문화적 배경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는 완곡 표현이 특정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언어 형식으로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 교육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선행 연구 검토

완곡 표현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에 속한다. 세계에는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하나의 국가라도 역사적 배경에 따라 지역마다 문화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서 세계에서 쓰이는 완곡 표현은 양적으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비하여 완곡 표현을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져 온 완곡 표현 연구 성과를 한국어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 한·중 완곡 표현 대조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2.1. 한국어 완곡 표현 연구

한국어 완곡 표현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완곡 표현의 개념 및 특징, 발달 기제를 다룬 것과 언어 단위에 따라 완곡 표현을 유형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이용주(1959), 임지룡(1992), 김광해(1993), 문금현(1999), 조미경(2005), 전정미(2007), 김홍석(2008) 등이 있다. 후자로는 조혜선(1999), 김미형(2000), 홍성호(2000) 등이 있다.

먼저 완곡 표현의 이론적 특징을 논의한 연구부터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 유형의 연

구 가운데 완곡 표현을 가장 이른 시기에 연구한 이용주(1959)에서는 완곡 표현을 ‘금기(taboo)’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원시 신앙, 생리작용, 성, 신체 배설물, 죽음, 인명, 병, 음식, 직업, 신분 등 금기의 유형에 따른 완곡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임지룡(1992)은 동의성(同意性)의 관점에서 완곡 표현의 특징을 밝힌 연구로, 이 연구 또한 완곡 표현을 금기와 관련지어 다루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금기어 가운데 죽음, 질병, 성에 관한 내용은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누그러뜨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금기어에 대응되는 직접적인 표현과 완곡한 표현 사이에 동의 관계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완곡 표현이 공용어의 자격을 획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김광해(1993)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이 연상되는 어휘의 경우, 그러한 연상을 줄이기 위해 대체되는 어휘소를 완곡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완곡 표현은 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신체의 명칭, 성행위, 배설 행위 등과 관련된 것부터 죽음, 질병, 형벌 등과 직결되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들 행위나 상황에 대한 심리적 경외감에서 비롯하는 완곡한 표현의 필요성에 따라 생성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완곡어에 대응하는 기본적 성격의 어휘소들은 다분히 금기어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문금현(1999)에서는 어휘 범주를 벗어난 ‘완곡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차적 의미 특성으로 완곡성을 지니는 관용 표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완곡 표현으로서의 관용 표현은 용법에 따라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표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경우, 추하고 더러운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경우, 청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화제를 돌려서 표현한 경우로 나누었다. 이 연구는 완곡 표현을 어휘 범주에 한하여 논의하였던 종래의 연구와 달리 완곡 표현의 범주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조미경(2005)에서는 공손성의 관점에 따라 완곡 표현을 ‘상대방이 느끼는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우회적인 표현’이라 정의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에서의 공손을 나타내는 완곡 표현은 의문형이 많이 쓰이고, 화행에 따라서는 요청, 청유, 명령, 거절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전정미(2007)에서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대화 참여자 간에 의견을 교환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거나, 부담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할 경우는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장치로 정의하였다.

김홍석(2008)은 어휘 범주의 완곡어에서 총 73개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은

밀함, 더러움, 추함, 두려움, 불편함, 불쾌감, 민망함' 등을 나타내는 원말을 죽음, 성, 변, 직업, 병환 등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완곡 표현의 실현 방식은 '간접화, 존대, 미화, 체면 유지, 회피, 모호성, 생략' 등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완곡 표현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 유형에서의 연구는 완곡 표현이 지니는 특징 가운데 표현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과 언어 단위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조혜선(1999) 등이 있고, 후자는 김미형(2000), 홍성호(2000) 등이 있다.

조혜선(1999)은 한국어와 영어 완곡 표현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공손 원칙'과 '협력 원칙' 가운데 전자의 원칙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완곡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완곡 표현을 '비유적 표현'과 '우회적 표현', '무관계적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김미형(2000), 홍성호(2000)에서는 완곡 표현을 언어 단위에 따라 어휘와 문장으로 나누었다. 홍성호(2000)에 따르면 어휘적인 차원에서는 '상류층'이나 '지배 계층'이라는 말 대신 '지도층'을, '근로자' 대신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을 예로 들었고, 문장의 경우 권고형 어법이나 피동형 문장, 실체에 대한 단정 피하기 등의 방식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김미형(2000)에서는 완곡 표현과 '공손 표현', '간접 표현'이라는 화용론적 개념과의 관계를 살피고, 완곡 표현을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완곡 표현을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이희진(2005), 광단양(2006), 왕효호(2010), 석진주(2011), 배성영(2012) 등이 있다.

이희진(2005)은 완곡 표현의 원인에 해당하는 금기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금기어의 문화적 특징을 분석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금기를 살핌으로써 금기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금기어 자체보다 그 바탕이 되는 문화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금기어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광단양(2006)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완곡 표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담화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완곡 표현을 대조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완곡 표현 사용에 나타나는 오류 양상이 언어적, 사회 문화적, 심리적,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왕효효(2010)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완곡 표현을 화행의 유형에 따라 ‘요청’, ‘명령’, ‘칭유’, ‘거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완곡어법을 화행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교재에서 개선해야 할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완곡 표현의 교육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으나, 완곡 표현의 내용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석진주(2011)에서는 교재 분석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완곡 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완곡 표현이 정리되지 않고 교재별 공통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상황 위주의 완곡 표현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성영(2012)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완곡어법의 종류와 제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단계에 따라 어떠한 완곡 표현이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완곡 표현 사용 실태를 비교하여 한국어 완곡 표현의 교육 내용 및 방안을 제안하였다.

1.2.2. 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 완곡 표현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진망도(陳望道, 1932)로, 초기에는 수사학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진송잠(陳松岑, 1989)도 마찬가지로 수사학적 관점에서 완곡어와 금기어를 대조함으로써 ‘완언법(婉言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완언법은 유의어로 대신하여 구성한 것, 비유 형식을 이용하여 구성한 것, 어조와 다른 성분의 첨가를 이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나누어 중국어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완곡 표현의 개념 정의 및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을 분석한 연구,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완곡 표현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국어 완곡 표현의 개념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상경우(常敬宇, 1995), 장공귀(張拱貴, 1996), 왕립정(王立廷, 1998), 양덕봉(楊德峰, 1999), 소군항·범위위(邵軍航·范蕤蕤, 2002), 최혜진(2003), 안병남(2004), 경주영(2008)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국어 완곡 표현의 개념은 왕립정(1998), 최혜진(2003), 경주영(20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혜진(2003: 10)에서는 완곡 표현을 ‘불쾌하고 귀에 거슬리는 표현을 보다 순화되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 및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왕

립정(1998)에서는 완곡 표현은 단어와 구의 형식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주영(2008)에서는 중국어의 언어 금기 분석을 통하여 완곡 표현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제시함으로써 그 전반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완곡 표현은 금기 표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정치, 외교, 군사, 무역, 상업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표현의 기능을 한다. 셋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민감한 화제를 이야기할 때 쓰인다. 다시 말하면 완곡 표현은 직설적인 성격을 지니는 금기어에 대응하는 순화 표현이며, 여러 상황 및 분야에 걸친 의사소통 전략에 해당한다. 또한 대화에서 민감한 화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 완곡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화 참여자들이 느낄 불쾌감을 줄인다는 점에서 완곡 표현의 개념은 앞 항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중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은 신체에 관한 것, 사회적 요인 외에도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선행 연구 성과에서 제시한 중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중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

선행 연구	유형
장경우(1995)	죽음, 남녀 사이, 인명, 기타 완곡어
장공귀(1996)	죽음과 상장(喪葬), 질병과 장애, 분비와 배설, 성애와 생육, 신체 기관과 생리 변화, 범죄와 징벌, 전란(戰亂)과 재난, 가정과 결혼, 인간관계와 호칭, 직업과 상황
왕립정(1998)	죽음, 배설, 성, 나이, 외모 및 인격 평가, 질병과 신체적 결함, 범죄 문제, 정치 생활, 외교 생활, 직업
양덕봉(1999)	성행위와 배설 및 신체 부위, 신체적 결함, 죽음, 불건전한 사회 현상, 직업과 직무, 일상생활 중의 기타 완곡어
최혜진(2003)	가정과 결혼, 직업과 경제, 죽음, 질병, 상장
안병남(2004)	성행위, 배설, 은밀한 신체 부위, 신체결함, 죽음, 좋지 못한 사회현상, 직업, 숫자의 타부

<표 1>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에서 ‘죽음’, ‘배설’, ‘성행위’와 같이 불길하거나 불결하

다고 여기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 부위’, ‘질병’, ‘신체적 결함’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꺼려지는 것들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성, 나이, 직업 등의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부정적인 사회 현상, 정치 및 외교 문제, 특정인의 외형 및 인격적 특성도 완곡 표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장공귀(1996), 최혜진(2003)에서는 결혼과 상장이라는 인간의 통과 의례를, 안병남(2004)에서는 숫자 ‘4’와 죽음을 뜻하는 한자인 ‘死(사)’와 관련하여 금기시되는 숫자 또한 완곡 표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완곡 표현의 구조 및 구성 방식은 홍안(洪雁, 2007), 손광혜(孫廣慧, 200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안(2007)에서는 중국어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이 음운, 어휘, 문법, 수사법, 모호(模糊) 의미에 따른 구조로 분류하였고, 의사소통에서 예의 기능, 말을 미화하는 기능, 남을 기쁘게 하는 기능, 사교 기능과 유머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손광혜(2008)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 따라 해음(諧音), 단어 의미, 수사법에 따른 구성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완곡 표현 연구는 진원(陳原, 1983), 황영추(黃映秋, 2003), 장추염(張秋豔, 2007)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완곡 표현의 생성 기제를 분석하였으며, 완곡 표현이 만들어지는 배경으로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진원(1983), 황영추(2003)에서는 중국어 완곡 표현의 사회적 본질은 어떠한가를 고찰하였다. 이 가운데 진원(1983)에서는 언어 금기로 완곡어가 만들어지며, 듣기 좋고 함축적인 말로 금기어를 대신한다고 하였으며, 황영추(2003)에서는 같은 완곡 표현이라도 시대에 따라 그 특징과 기능이 변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한편 장추염(2007)에서 완곡 표현은 기원, 혼인, 죽음, 직업 호칭, 정치 생활, 일상생활 등 민족 문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1.2.3. 한·중 완곡 표현 대조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 대조 연구는 완곡 표현의 생성 요인 및 구성 방식을 대조한 것, 유형에 따른 완곡 표현을 대조한 것,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조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의 완곡 표현 교육을 위한 기초 자

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도 있다.

먼저 두 언어의 완곡 표현의 생성 요인 및 구성 방식을 대조한 연구는 남계선(南桂仙, 2006), 김리나(金莉娜, 2006), 추풍휘(2009), 채춘옥(2014)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중국어와 한국어 완곡어의 개념과 유형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생성 요인이나 구성 방식에 따라 대조 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가운데 추풍휘(2009)에서는 어휘 범주의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생성 요인과 구성 방식을 대조하였다. 생성 요인은 ‘금지 피함’, ‘저속 피함’, ‘숨김·위장 표현’, ‘예의와 존경의 표현’으로 분류하였고, 구성 방식은 ‘음성 방식’, ‘문자 방식’, ‘어휘 방식’, ‘문법 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흉한 것을 피하고, 전통문화적 특징에 따라 ‘예의와 존경의 표현’이 완곡 표현으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쥐, 구더기, 노래기’에 대한 완곡 표현이 한국어에는 ‘서생원, 엑씨님, 향량각시’ 등으로 존재하는 반면 중국어에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색채어와 관련하여 성적인 것을 한국어에서는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노란색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구성 방식에서는 어휘 방식을 제외하고 모두 차이를 보였다. 음성 방식에서는 해음이 중국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문자 방식에서는 한글의 문자적 특징으로 대자(代字) 유형 가운데 결획(缺劃)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법 방식에서는 언어유형론적으로 중국어가 고립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용형 사용’과 ‘피동형 전환’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채춘옥(2014)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생성 요인을 크게 ‘객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체면적 요인,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된 ‘주관적 요인’으로, 구성 방식으로는 ‘음성 문자 병용 방식’, ‘어휘 병용 방식’, ‘수사 방식’으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이에 따라 두 언어에 따른 완곡 표현의 목적별 유형 및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을 유형에 따라 나누어 대조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에 대한 연구는 적록(翟泉, 2006), 왕소단(2011), 마풍빈(2012), 이선희(2012), 양정(2013)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단어 단위의 완곡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 또는 문장 단위의 완곡 표현의 화행을 유형화하여 두 언어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적록(2006)에서는 어휘와 문장 단위의 완곡어를 ‘죽음’, ‘질병’, ‘성’, ‘배설’, ‘신체’, ‘직업’ 등으로 나누었다. 세부적으로 사용 심리 및 의미 기능에서 어휘 차원의 완곡어는 ‘언어 금기와 관련된 완곡어’, ‘예절과 존중원칙에 부합되는 완곡어’, ‘숨김·위장 역할을 하는 완곡어’ 등으로, 문장 차원에서는 ‘서술형’, ‘의문형’, ‘칭유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구성 방식은 어휘 범주에서는 ‘유의어로 대체’, ‘추상화’, ‘수사법 사용’, ‘외래어 차용’으로, 문장 차원에서는 ‘어조 전화’, ‘기타 언어 성분 첨가’, ‘주어 생략’, ‘관용어 사용’, ‘피동표현 사용’ 등으로 분류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위 연구와 마찬가지로 왕소단(2011)에서는 ‘죽음’, ‘질병’, ‘성’, ‘배설’, ‘신체’, ‘직업’, ‘사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마풍빈(2012)에서는 일상 영역은 ‘배설과 성’, ‘죽음과 질병’, ‘인체와 행위’로, 사회 영역은 ‘정치’, ‘문화 현상’, ‘직업’, ‘경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선희(2012)에서는 어휘 범주는 ‘죽음’, ‘질병’, ‘신체장애’, ‘성’ 등으로, ‘거절’, ‘요청’, ‘명령’, ‘지시’ 등으로 나누어 두 나라 언어의 완곡 표현을 대조하였다.

한편 양정(2013)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어를 ‘죽음’, ‘성’, ‘변(便)’, ‘병’, ‘부정적 행위’ 등으로 분류하여 두 언어 완곡어의 유형별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완곡 표현의 유형은 ‘죽음’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그 반대는 한국어에서는 ‘재난과 전쟁’ 유형이었으며, 중국어에서는 ‘동식물 명칭’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을 대조 분석한 연구는 김옥(2011) 등이 있다. 김옥(2011)은 한국어 교육용 완곡 표현을 목록화한 연구로, 선정된 완곡 표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두 언어의 완곡어를 대조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음운적, 어휘적, 문법적, 수사적 구성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두 언어 완곡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대조 연구가 있으며, 이 유형의 연구로는 박선희(2002), 용요요(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중국어 교육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선희(2002)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휘적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완곡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용요요(2010)에서는 두 언어의 완곡 표현을 ‘사망과 배설’, ‘성행위’, ‘질병’, ‘직업과 직무’로 나누어 대조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교사가 중국어 완곡 표현을 중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한·중 두 언어 완곡 표현의 선행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완곡 표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교육 방안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완곡 표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완곡 표현의 정의와 유형 분류에 치중하였고, 중국어 완곡 표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완곡 표현의 역사적 배경, 수사법, 생성 원인, 구성 방식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을 대조 분석한 연구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어휘적 완곡 표현만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유형화에서는 개별 완곡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체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대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 언어의 완곡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분석 또한 설명력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 단위의 완곡 표현뿐 아니라 관용구¹⁾와 문장 단위의 완곡 표현 또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을 대조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완곡 표현의 유형을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심리와 관련된 것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대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언어문화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전통 사회에서는 귀신의 존재에 대한 공포감과 경외감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금기를 통하여 완곡 표현이 만들어졌다. 즉 완곡 표현은 초기에 금기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는 완곡 표현이 기본적으로 금기 표현의 대체어라는 김광해(1993)에서의 언급과 관련지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완곡 표현은 전통 사회의 완곡 표현과는 다르다. 이는 곧 완곡 표현과 금기 표현이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도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완곡 표현이 공손성(politeness)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예의상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써 다른 단어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범주뿐만 아니라 문장 범주도 포함한 한·중 두 나라의

1) 김미형(2000: 33)에서 '어휘 범주의 완곡어는 재앙이 온다고 믿거나 더럽거나 은밀하거나 안 좋은 것, 곧 말하기 민망하거나 듣기에 불편한 것을 듣기 좋게 바꾼 단어 또는 관용구'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금기 표현과 대응된 완곡 표현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완곡 표현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완곡 표현의 내용과 분류에 대한 본 연구의 대상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체, 심리와 관련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다. 본 연구의 완곡 표현 사례의 자료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사전²⁾, 서적, 인터넷 자료, 시사 뉴스³⁾ 등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많이 보거나 사용하는 것을 참조하였다. 이들을 통해서 한·중 완곡 표현을 대조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논의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완곡 표현을 다룬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논의의 구성 및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완곡 표현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완곡 표현을 유형화한다. 또한 금기 표현, 완곡 표현, 공손 표현과 완곡 표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개념과 구분되는 완곡 표현의 특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완곡 표현 가운데 인간의 신체와 심리에 관한 완곡 표현에 대한 용례를 통하여 두 나라 언어에 나타나는 완곡 표현의 특징을 대조 분석하겠다.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는 죽음, 질병, 신체장애, 성, 생리 현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한편 심리에 관련된 것은 화행에 나타나는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내용에 기대어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논의한다. 즉, 이런 문화적인 요인이 완곡 표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도록 하겠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의의 및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2) 사전은 주로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중한사전>, <우리말샘>, <에듀월드(Eduworld) 표준중중한사전>을 참조한다.

3) 인터넷 자료와 시사 뉴스는 주로 한국 검색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www.naver.com)와 중국 검색 포털사이트 바이두(Baidu, 百度: www.baidu.com)로 검색해 수집하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완곡 표현은 보편적인 언어 현상의 일종으로, 한 사회의 문화, 언어, 지역, 자연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종류와 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완곡 표현의 발생과 응용은 금기와 직접 관련이 있으나, 현대에는 공손성과 같은 화용론적 기제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형식의 측면에서 완곡 표현은 어휘 수준의 표현 외에도 문장 수준에 이르는 것 또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완곡 표현의 개념 및 특징, 완곡 표현의 유형, 그리고 완곡 표현과 금기 표현의 관계, 완곡 표현과 공손 표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1. 완곡 표현의 개념 및 특징

먼저 완곡 표현이란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부담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그에 대응되는 부드럽고 우회적인 표현을 이르며, 어휘와 문장의 범주를 모두 포괄한다. 영어로는 ‘euphemism’이라고 하는데, 어원은 그리스어 ‘euphemisios’으로, 그 의미는 ‘Good speak(예쁘고 완곡하게 말한다)’이다. 이러한 ‘euphemism’은 고전적으로 수사학(Rhetorics)에서 ‘완곡어법’이라 하여 어휘론 차원에서 언급해 왔기 때문에 주로 어휘 범주의 완곡 표현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논의에서는 완곡 표현을 ‘완곡어’, ‘완곡어법’, ‘완곡 표현’ 등 세 가지로 논의해 왔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완곡어’와 ‘완곡어법’을 각각 “완곡한 말”과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표현법”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 정의는 세 용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완곡 표현을 정의하는 용어에 따라 선행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 (1) 가. **완곡어**: 김광해(1993), 박종호(1998), 김홍석(2008), 김미형(2009), 채춘옥(2014), 하정연(2017), 김억조(2019가, 나)
- 나. **완곡어법**: 이용주(1959), 노대규(1975), 유병태(1985), 임지룡(1992), 조혜선(1999), 홍성호(2000), 강병창·안혁(2013), 김철규(2019)
- 다. **완곡 표현**: 김미형(2000), 김현철·김민영(2009), 오현주(2010), 오길용(2012), 채

춘옥(2013ㄱ, 2013ㄴ, 2014, 2016), 이갑남(2017, 2018)

(1)에 따르면 세 용어는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완곡어법’이 가장 초기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완곡어법’이라는 용어는 ‘어법’, 즉 완곡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법칙으로서 어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면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광해(1993: 160)에 따르면 ‘완곡어’는 ‘기존의 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연상을 삭감하고자 사용되는 일군의 어휘’라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완곡어’는 어휘 범주 표현이라는 제한적인 관점에서 배태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완곡 표현’은 어휘뿐 아니라 문장 단위의 표현까지를 포함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보인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완곡한 언어 표현을 ‘위완어(委婉語)’, ‘완언법(婉言法)’, ‘委婉表達(위완 표현)’이라는 용어으로써 다루어 왔다. 여기에서 ‘위완(委婉)’은 한국어의 ‘완곡하다’의 의미와 유사하며, 세 용어 또한 한국어의 ‘완곡어’, ‘완곡어법’, ‘완곡 표현’과 대응되며, 개념 또한 유사하다.

진송잠(1989: 34)에 따르면 위완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대신, 속뜻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표현으로써 ‘완언법’을 통해 암시하는 수사적 표현이라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적 표현’을 수사어(修辭語)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위완어’는 어휘 범주의 완곡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완언법’은 위완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법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진원(2000: 89)에 따르면 우회적인 표현 또는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로 대체하거나 암시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완언 표현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정의한 세 용어에 대한 개념은 모두 한국에서의 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완곡 표현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완곡 표현의 특징은 주로 생성 기제 및 대화 내 기능과 관련된다. 완곡 표현의 생성 기제는 금기 표현과 공손성이 대표적이며, 대화 내 기능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와 관련된다. 그 외에는 언어적 특징이 속하는바, 완곡 표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완곡 표현은 언어적,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표현 대신 사용하는 우회적인 언어 형식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완곡 표현은 한 사회의 역사, 문화적 배경의 산물이자 대화 참여자 및 발화에서 언급되는 대상의 배경이나 특성 또는 대화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완곡 표현은 보편적으로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그 특수성을 지니기도 한다.

둘째, 완곡 표현은 언어 환경에 의존한다. 소군항(邵軍航, 2008)에서 완곡 표현이 지니는 완곡성이 높을수록 언어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언급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완곡 표현을 사용할 때 언어 환경에 따라 적당한 완곡어를 선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웃어른의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다른 언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셋째, 완곡 표현의 생성과 사용은 금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완곡 표현은 본래 금기어의 직접적인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생겨났다는 점에서, 금기어를 대체하기 위한 언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전통적 금기가 약화되면서 완곡 표현은 의사소통 내에서 공손하고 재치있는 표현으로 자리잡고 있다.

넷째, 완곡 표현은 지시 대상을 모호하게 나타낸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지시 대상의 의미가 모호한 완곡 표현이 대다수이다. 완곡 표현이 지니는 의미의 모호성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불쾌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상대방이 그 의미를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언어권 또는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종종 발생한다.

다섯째, 완곡 표현은 다양성과 가변성을 지닌다. 언어는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완곡 표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의 발달 속에 언어 사용자들의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기존의 완곡 표현이 완곡성을 상실하기도 하고, 새로운 완곡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어에서 ‘撒尿(오줌을 누다)’에 대응하는 완곡 표현으로 과거에 소변을 뜻하는 ‘小便’이 있었지만, 이 표현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곡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出去一下(잠시 나갔다 오다)’, ‘去一下洗手間(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 등의 새로운 완곡 표현이 생겨나면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은 해당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2.2. 완곡 표현의 유형

종래의 완곡 표현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죽음’, ‘질병’, ‘장애’, ‘성’, ‘배설’, ‘직업’, ‘부정적인 사회 현상’ 등 완곡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에 따라 분류하여 왔다. 이러한 유형화는 다소 산발적이라 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곡 표현이 지니는 특징에 따라 완곡 표현을 유형화하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완곡 표현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김미형(2000), 추풍휘(2009), 마풍빈(2012)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완곡 표현을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로 나누었다. 어휘 범주의 완곡 표현은 해당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 분류하였고, 문장의 범주는 화행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성 요인은 ‘금기 피함’, ‘저속 피함’, ‘숨김·위장 표현’, ‘예의와 존경의 표현’으로 분류하였고, 구성 방식은 ‘음성 방식’, ‘문자 방식’, ‘어휘 방식’, ‘문법 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2> 한국어 완곡 표현 유형화

선행 연구	범주	유형	세부 유형
김미형 (2000)	어휘	금기어를 대신하는 전통적인 완곡어4)	-
		일상 생활에서 굳어져 일상 용어로 사용되는 완곡어5)	-
		표현 의도를 읽을 수 있는 현대의 완곡어6)	-
	문장	청자 중심의 완곡 표현7)	-
		화자 중심의 완곡 표현8)	-
		제삼자 중심의 완곡 표현9)	-

4) 미신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불행한 일을 겪을 것이라 믿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완곡 표현

5) 신체나 성(性), 불결한 것, 두려운 일 등 불쾌감을 주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완곡 표현

6) 비교적 현대에 생긴 말로, 듣기에 거부감을 주는 표현을 듣기 좋게 바꾼 것

7)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 명령, 질문, 지적 등의 행위와 관련된 완곡 표현

8) 화자가 주장 및 진술, 거절 또는 혜택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와 관련된 완곡 표현

9) 제삼자의 행위나 상태 등을 언급할 때, 제삼자를 배려하기 위한 완곡 표현

10)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세부적인 생성 요인의 유형은 다음에 제시하도록 한다.

ㄱ. 금기 피함: 외경의 대상, 죽음, 질병

ㄴ. 저속 피함: 성, 배설물

추풍휘 (2009)	어휘	생성 요인 ¹⁰⁾	금기 피함
			저속 피함
			숨김·위장의 표현
			예의와 존경의 표현
		구성 방식 ¹¹⁾	음성 방식
			문자 방식
			어휘 방식
			어법 방식
	문장	요구와 명령 표현	-
		의문과 추측 표현	-
		의견과 건의 표현	-
거절 표현		-	
수혜 표현		-	
배려 표현		-	
마풍빈 (2012)	어휘	일상 영역	죽음과 질병
			배설과 성
			인체와 행위
		사회 영역	정치
			경제
			직업
			문제 현상

ㄷ. 숨김·위장 표현: 정치·외교 영역, 사회·경제 영역, 일상생활 영역

ㄹ. 예의와 존경의 표현: 신체 장애, 개인 평가, 직업, 범죄나 불량 행위, 사상 표현 - 요구와 희망 표현/건의와 건의 표현, 거절 표현, 수혜 표현, 화자 자신이나 주체에 대한 배려 표현

11)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세부적인 구성 방식의 유형은 다음에 제시하도록 한다.

ㄱ. 음성 방식: 피음(避音), 변음(變音), 해음(諧音)

ㄴ. 문자 방식: 개자(改字) - 대자(代字)/결획(缺劃), 렫자(隱字), 파자(破字)

ㄷ. 어휘 방식: 금기어 대용어, 유의적/유의어적 교체, 추상어 교체, 차용 외래어, 수사적 전용어

ㄹ. 어법 방식: 의문형 전환, 성분 첨가, 관용형 사용, 피동형 전환

한편 중국에서는 속정방·서금원(束定芳·徐金元, 1995)와 이군화(李軍華, 2010)에서의 유형화가 대표적이다. 속정방·서금원(1995)에서는 완곡 표현을 ‘협의 완곡어(狹義委婉語)’와 ‘광의 완곡어(廣義委婉語)’로 나눈다. 이군화(2010)은 고정 여부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고정 완곡어(固定委婉語)’와 ‘임시 완곡어(臨時委婉語)’로 나뉜다.

협의 완곡어는 단어 또는 구 단위의 완곡 표현을 가리키는바, 한 언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반면 광의 완곡어는 음성적, 문법적, 담화적 언어 요소가 완곡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획득한 것을 이르며, 협의 완곡어와 달리 일시적이며 사용층도 그리 넓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광의 완곡어의 예로 음성 층위에서는 휴지(pause), 길이,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가 있으며, 문법적 층위에서는 간접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완곡 표현으로서의 담화적 언어 요소는 한국어 담화 표지 ‘좀’, ‘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광의 완곡어는 ‘임시성(臨時性)’, ‘개별성’(個別性)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고정 완곡어는 언어 공동체에서 관례적으로 쓰이는 고정된 형식을 지닌 완곡 표현이다. 이군화(2010: 52~58)에서 고정 완곡어는 음성, 어휘, 문법의 층위에서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음성에서는 음 삭제, 피음(避音), 변음이 있고, 어휘 층위에서는 전문용어, 파생어, 수사적 어휘, 차용어가 있다. 한편 문법적 고정 완곡어의 경우는 문장 단위의 표현을 이룬다. 한편 임시 완곡어는 언어 공동체에 적응하고 그 안의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주로 언어적, 논리적 수단을 바탕으로 말할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며, 음성적, 문법적 층위에서의 표현으로 나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완곡 표현을 ‘신체 및 심리 관련 완곡 표현’과 ‘사회 및 문화 관련 완곡 표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완곡 표현의 분류

구분	대분류	소분류
신체, 심리 관련 완곡 표현	신체 관련 완곡 표현	죽음
		질병 및 신체장애
		성
		생리적 현상
	심리 관련 완곡 표현	지적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사회, 문화 관련 완곡 표현	직업	-
	경제	-
	정치	-
	호칭	-
	부정적인 사회 현상	-

2.3. 완곡 표현과 금기 표현

완곡 표현과 금기 표현¹²⁾은 서로 다른 언어 현상이지만 모두 한 사회의 전통문화, 사회 풍속 등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이다. 또한 진원(2000)에 따르면 완곡 표현은 금기, 즉 ‘터부¹³⁾’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금기 표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12) 금기 표현은 주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금기어’, ‘금기담’ 등의 용어로 다루어져 왔다. 주로 사전에서는 ‘금기어’만을 표제어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기어와 금기담을 각각 단어와 문장 단위의 금기 표현으로 보고, 이 두 용어를 중립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금기 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13) 터부(taboo, tabu)는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터푸’, ‘카푸’, ‘아푸’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발음되며, 미크로네시아어나 멜라네시아어에서도 나타나는데, 1777년 영국 선장 J.쿡이 여행기에서 언급한 이후 금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굳어졌다. 터부는 ‘신성한 것’, 또는 ‘불결한 것’을 뜻하는 말로, 심재기(2000: 259)에 따르면 이 두 개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사물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거나 피한다는 의미가 나타났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금지에 대해서 이 말을 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종수(2000: 252)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unantastbar)’, ‘침해할 수 없는 (unverletzlich)’, ‘성스러운 (heilig) 것’을 뜻하고,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성적인 이유에서 대개 ‘금지된(verboten)’, 즉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etwas, wovonman nicht sprechen

따라서 이 절에서는 금기 표현의 개념을 살피고, 이를 완곡 표현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에서는 금기 표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 가운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5)에서는 금기 표현을 터부라 정의하였으며, 인간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상황에 대한 접근 행위를 제지하고 기피하는 것을 통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말로, 관습, 신앙, 질병, 배설 따위와 관련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터부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론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사전 가운데 《現代漢語詞典》(2016)에 따르면, 금기란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위라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보다 협의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논의에 나타나는 금기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심재기(2000), 심재숙(2013), 조향숙(2013), 이갑남(2017)에서는 공통적으로 금기 표현을 ‘꺼리어 피하는 대상이나 행동을 이르는 말’이라 정의하였다. 이 가운데 심재기(2000: 259)에서는 ‘특정한 행동 또는 사물에 대한 접촉 금지’라는 금기의 기본 개념이 점차로 확장하여 인간의 다양하고 무수한 행동의 금지를 통칭하는 뜻으로 변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심재숙(2013)에서 금기표현은 사회문화적 범주에 속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갑남(2017: 130)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금기 표현을 ‘금기어’라 명명한 것 외에 ‘금기담’ 또는 ‘금기언’이라 하여 금기 표현을 지칭하는 용어와 그 지시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어휘 범주로서의 ‘금기어’와 통사 범주와 관련된 ‘금기담’이나 ‘금기언’으로 분류하였다. 중국의 경우 이군화(2010: 36)는 금기 표현의 특징을 ‘보편성’, ‘지역성’, ‘시대성’, ‘연상성’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금기 표현은 어느 민족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금기시되는 대상이 사물 자체가 아닌 연상 심리에 따르는 호칭, 발음, 단어가 될 수 있는 ‘연상성’ 등이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금기 표현의 개념을 토대로 금기 표현과 완곡 표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임지룡(1992), 김광해(1993), 주숙청(周淑淸, 1996), 진신(2012) 등에 제시된 견해에서 두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지룡(1992)에서는 직접 표현과 완곡 표현 사이에 동의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며, 김광해(1993)에서는 완곡 표현에 대응하는 기본적 성격의 어휘소들은 금기 표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한편 주숙청(1996: 72)에서는 완곡

darf)’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표현은 일반적으로 금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스럽고 직접적이며 귀에 거슬리는 금기어를 대신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며, 진신(2012: 11)에서는 금기 표현과 완곡 표현을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개념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가치는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면 완곡 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직접 표현으로, 직접 표현은 곧 금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기 표현을 완곡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원인은 어떠한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과 사망, 재난 등의 현상이 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경감하고,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 예컨대 죽음의 경우 ‘죽다’를 ‘돌아가다’, ‘눈을 감다’ 등으로 직접적인 표현 대신 일상적인 어휘로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둘째, 신앙이나 종교 등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대상을 우회적으로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종교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신을 가리키는 완곡 표현을 만들어낸다. 여기에서는 기독교에서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완곡 표현의 사용은 인류의 진보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저속한 것을 피하는 심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즉 성과 관련된 것과 배설물 등 외설적이고 불결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그에 대한 완곡 표현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어에서는 ‘有喜了(유희)’는 임신을 뜻하는 말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배설 행위는 대변과 소변을 총칭하는 ‘大小便(대소변)’을 대신하여 ‘解手(해수)’나 ‘方便(방편)’, ‘上厕所(상축소: 변소에 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넷째, 세계화 및 다원화에 따라 사회 문제와 관련된 완곡 표현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대중이 이를 수용하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는 주로 장애인, 노인 문제, 빈곤과 낙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급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것 등과 관련된 것이 있다. 그 외에도 정치, 군사, 외교 용어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완곡 표현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예는 ‘장님’을 ‘시각장애인’으로, ‘장사꾼’을 ‘상인’으로, ‘빈곤하거나 낙후된 국가’를 ‘제3세계’로 부르는 것이 있는 한편(楊德峰, 1999: 13), 정치 및 외교의 경우 중국어에서 어떠한 사안을 반대하거나, 그 사안을 받아들여야 할 때 ‘可以了解(이해할 수 있다)’, ‘可以接受(받아들일 수 있다)’, ‘表示遺憾(유감스럽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한다(吳穎, 1996: 36).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완곡 표현은 인간에게 공포 및 경외의 대상, 불결하거나 저속한 것, 사회적으로 민감한 것에 주로 사용하며, 이는 그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금기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완곡 표현은 한 언어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사회심리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완곡 표현은 사회 내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완곡 표현과 금기 표현은 완벽하게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관계는 아니다. 완곡 표현이 금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완곡 표현이 금기 표현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이갑남(2017: 133)에서는 ‘대체성이 있거나 암시성이 있는 어휘’를 완곡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완곡 표현은 금기 표현을 대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암시성’은 다른 표현에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완곡 표현이 다른 요인에 의해 생성되어 사용되기도 함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곡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기 표현은 전통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대까지 계승된 표현이 대부분이나, 현대에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금기, 각종 업계의 금기, 개인적인 금기의 경우 그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결핍되어 있다. 이는 금기 표현이 집단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곡 표현이 모든 금기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완곡 표현은 금기어를 대신하여 정치, 군사, 외교 등의 격식적인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민감하고 자극적인 화제를 이야기하는 데 주로 쓰이는 반면,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금기어를 흔히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완곡 표현과 금기 표현이 사용되는 영역에 차이가 있다.

2.4. 완곡 표현과 공손 표현

완곡 표현은 금기 표현뿐 아니라 공손 표현과도 관련이 있다. 공손(politeness)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긍정의 태도를 표출하여 화자와 상대방의 체면을 모두 보호하는 언어 행위로, 공손성의 실현은 사회적 요인인 참여자 요인과 상황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¹⁴⁾. 강현석 외(2014: 219)에 따르면 공손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적극적

14) 참여자 요인은 힘(power)과 거리(distance) 요인으로 나뉜다. 힘의 요인에는 나이, 지위, 성 등이 있고, 거리 요인에는 성별과 친소 관계 등이 있다. 한편 상황 요인은 격식성과 제3자 인물의 현장성으로 나뉜다.

공손(positive politeness)'과 타인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는 공손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수한 어휘 요소, 피동법, 간접 화행, 부정 의문문 등의 문법 요소들이 공손 표지로 사용된다고 하였다¹⁵⁾. 이러한 문법 요소 가운데 한국어의 경어법¹⁶⁾을 빼놓을 수 없다. 경어법은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는 아주높임 또는 두루높임의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현하며, 평상시보다 공손성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완곡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한다.

완곡 표현과 공손 표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장공귀(1996), 왕립정(1998), 허상희(2009), 서은경(2010) 등이 있다. 장공귀(1996: 213)에서는 발화에 드러난 감정적 색채의 유무에 따라 공손 표현과 완곡 표현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손 표현은 감정적 색채가 없는 말에 습관적, 인위적으로 감정적 요소를 첨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화자의 겸손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완곡 표현은 애초부터 혐오감 또는 불쾌감 등과 같은 감정적 색채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직접 표현을 부드럽게 에둘러 표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손 표현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왕립정(1998: 16)에서는 완곡 표현과 공손 표현은 직접적 표현을 부드럽게 표현한다는 교차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그 교차점은 주로 존경과 겸손의 색채를 지닌 완곡 표현 또는 완곡 표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높임 표현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서은경(2010: 14)에서 공손 표현은 주로 대인관계, 태도, 풍격(風格)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반면, 완곡 표현은 주로 사람들이 저속하거나 불결하다고 느껴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거나 불쾌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허상희(2009: 216)에서는 완곡 어법은 공손 표현의 일종인 경어법과 같이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지키지 않으면 화자의 사회적 체면이 손상된다고 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손 표현과 완곡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손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주요

15) 구체적으로 강현석 외(2014: 221)에서는 적극적 공손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사용, 상대방 칭찬하기, 소속감을 높이는 표지 사용,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기 등을, 소극적 공손에서는 간접 화행 사용, 울타리 표현(hedge) 사용, 강요 회피 등을 예로 들었다.
 16) 중국어에도 경어법이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정치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경어법 체계가 단일화되었다. 그리고 경어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공손의 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어법보다는 앞의 언어 장치가 더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경어법은 완곡 표현 가운데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완곡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듣기 좋은 말로 대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손 표현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되지만, 완곡 표현은 사회적 요인과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대화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완곡한 표현이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꼭 완곡 표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완곡 표현은 공손 표현 외의 다른 방식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은 아니다 (김미형, 2000: 39).

3. 한·중 완곡 표현의 유형별 사용 양상

본 연구에서는 어휘 범주의 신체 관련 완곡 표현과 문장 범주의 심리 관련 완곡 표현을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신체와 관련된 완곡 표현은 ‘죽음’, ‘질병과 신체장애’, ‘성’, ‘생리적 현상’과 관련된 것이 있다. 한편 심리에 대한 완곡 표현은 화행에 따라 ‘지적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두 유형과 그 하위 항목에 따른 완곡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사례와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다.

3.1. 신체 관련 완곡 표현

3.1.1. 죽음 관련 완곡 표현

예로부터 ‘건강’은 시대와 민족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죽음’은 누구든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로 금기시해 왔다. 따라서 죽음 또는 그러한 사람을 대화 내에 언급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신분과 나이, 성별에 따라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완곡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종교 또는 대상의 사망 원인에 따라서도 많은 수의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죽음에 관한 다양한 완곡 표현을 ‘신분’, ‘종교’, ‘사망 원인’으로 나누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죽음에 관한 완곡 표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1.1. 신분에 따른 죽음 관련 완곡 표현

신분에 따른 죽음 관련 표현은 중국의 옛 문헌인 《예기·곡례(禮記·曲禮)》에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문헌에서의 언급에 따르면 사람의 죽음에도 신분에 따른 질서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天子死曰崩，諸侯曰薨，大夫曰卒，士曰不祿，庶人曰死。

(천자의 죽음을 ‘붕(崩)’, 제후의 죽음을 ‘홍(薨)’, 대부의 죽음을 ‘졸(卒)’, 선비의 죽음을 ‘불록(不祿)’, 백성의 죽음을 ‘사(死)’라고 한다.) 《예기·곡례》

(1)에 따르면 왕과 제후, 사대부, 백성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왕과 제후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너지다’를 뜻하는 한자어인 ‘붕(崩)’과 ‘홍(薨)’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이 무너질 정도의 재해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 사대부의 죽음은 각각 관직 생활이 끝났음을 뜻하는 ‘졸(卒)’, 녹을 더 이상 받지 않음을 뜻하는 ‘불록(不祿)’을 사용하였다. 이들 표현은 공직 생활이 끝났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예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백성의 죽음은 ‘사(死)’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신분에 따른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을 ‘왕과 제후’, ‘영웅, 공직자, 유명인’, ‘일반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 또는 젊은 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이었다는 사실에 따라 나이와 성별에 따른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은 일반인의 죽음 유형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1) 왕과 제후의 죽음

왕과 제후의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 표현은 한국어의 경우 모두 한자어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의미라도 고유어보다 한자어 표현이 더 정중하고 격식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사용하며, 표현 방식에서도 중국어 표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왕의 죽음은 ‘붕’형이, 제후의 죽음은 ‘홍’형이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두 나라 언어에서 왕과 제후의 죽음을 각각 나타내는 ‘붕’형과 ‘홍’형의 완곡 표현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2) 가. 한국어

ㄱ. ‘붕(崩)’형: 붕(崩), 천붕(天崩), 붕어(崩御)

ㄴ. ‘홍(薨)’형: 홍(薨), 홍서(薨逝), 홍어(薨御), 홍거(薨去)

나. 중국어

ㄱ. ‘붕(崩)’형: 붕(崩), 붕逝(붕서), 駕崩(가붕), 暴崩(폭붕), 崩諸(붕제), 山陵崩(산릉붕)

ㄴ. ‘홍(薨)’형: 薨(홍), 薨奄(홍엄), 薨逝(홍서), 薨謝(홍사), 薨歿(홍몰), 薨隕(홍운)

(2)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왕과 제후의 죽음에 관한 완곡 표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가ㄱ, 나ㄱ)과 같이 두 나라 모두 왕의 죽음에서는 ‘붕’과 왕과 관련된 단어인 ‘어(御)’, ‘가(駕)¹⁷⁾’, ‘산릉(山陵)¹⁸⁾’ 등의 단어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있다. 또한 자연물 가운데 높음을 나타내는 것 또는 만물을 뜻하는 단어인 ‘천(天)’, ‘제(諸)’와 결합하여 왕의 죽음이 곧 크나큰 재해에 버금가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¹⁹⁾.

한편 제후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2가ㄴ, 나ㄴ)과 같이 ‘가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서(逝)’, ‘거(去)’, 하강의 의미를 지니는 ‘사(謝)’, ‘몰(歿)’, ‘운(隕)’, 숨이 끊어지는 모양을 이르는 ‘엄(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죽음을 암시하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에 해당한다. 물론 제후의 죽음 또한 백성들에게 큰일로 인식되는 일이라는 하지만, 하늘 또는 만물이 무너지는 일과 같다는 왕의 죽음 관련 표현과는 다르게 제후의 경우 개인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왕의 죽음과 관련하여 ‘높은 곳에 오르다’, ‘수레에 오르다’ 등을 뜻하는 표현이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버리다’와 관련된 표현뿐 아니라 장수(長壽)를 의미하는 단어가 반어적으로 쓰인 것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어 표현이 한국어보다 왕의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 표현의 유형이 다양하며, 그 수 또한 많다고 여겨진다. 다음의 예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가. 한국어

ㄱ. 승하(昇遐), 등하(登遐), 예척(禮陟), 척방(陟方), 상빈(上賓), 빈천(賓天)

ㄴ. 안가(晏駕), 용어(龍馭), 선어(仙馭)

나. 중국어

ㄱ. 登遐(등하), 昇遐(승하), 賓天(빈천), 賓空(빈공), 龍馭賓天(용어빈천)

ㄴ. 晏駕(안가), 晚駕(만가), 晏歸(안귀), 龍馭(용어)

ㄷ. 棄天下(기천하), 棄群臣(기군신)

ㄹ. 千秋(천추), 萬歲(만세), 千秋萬歲(천추만세), 萬歲千秋(만세천추)

17) ‘駕(가)’는 천자의 수레를 뜻하는바, 천자를 가리킨다.

18) 전통 시대에 임금의 무덤을 뜻하는 단어이다.

19) 이갑남(2017)에서도 왕의 죽음과 관련한 완곡 표현 가운데 ‘붕(崩)’자가 들어가 있는 어휘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황제의 죽음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큰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였다.

ㄹ. 長逝(장서), 大諱(대휘), 大憂(대우), 大行(대행)

(3가ㄱ, 나ㄱ)에 제시된 표현은 모두 높은 곳에 오르는 의미와 연관된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모두 ‘오르다’를 뜻하는 ‘승(昇)’, ‘등(登)’, ‘척(陟)’ 또는 높은 곳이나 하늘을 뜻하는 ‘상(上)’, ‘공(空)’, ‘천(天)’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의 단어가 포함된 표현은 내세(來世)로 떠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손님을 뜻하는 ‘빈(賓)’과 결합하여 하늘의 손님이 된다는 뜻을 나타낸다²⁰⁾.

(3가ㄴ, 나ㄴ)에서는 공통으로 ‘수레’와 연관된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용어(龍馭)’, ‘선어(仙馭)’는 각각 왕의 수레, 왕이 죽은 후 신선이 되어 타는 수레를 뜻한다²¹⁾. ‘안가(晏駕)’, ‘만가(晩駕)’는 왕이 죽고 나서 가마를 타는 모습에 따라 지어진 말이며, 안귀(晏歸)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세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른다.

(3나ㄷ)은 ‘버리다’의 의미를 지닌 ‘棄(기)’가 포함된 표현의 예이다. ‘棄天下(기천하)’와 ‘棄群臣(기군신)’은 각각 만물과 군신 관계를 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나ㄷ)의 경우 본래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말이었으나, 왕의 죽음을 완곡하게 일컫는 표현이 되었다는 점에서 반어적인 쓰임이라고 할 것이다. (3나ㄹ)에 제시된 예는 기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長逝(장서)’는 오랜 시간 동안 떠난다는 의미를 지니며, ‘大憂(대우)’는 왕의 죽음이 큰 근심과 같다고 하여 생성된 표현이다. 한편 ‘大諱(대휘)’는 왕의 재난을 큰 슬픔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왕의 죽음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표현이다. 한편 ‘大行(대행)’은 이미 죽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후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3나ㄷ)과 같이 ‘버리다’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사용한 완곡 표현이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4) 捐賓客(연빈객), 捐館舍(연관사), 謝賓客(사빈객)

(4)에서 ‘捐賓客(연빈객)’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버린다는 뜻으로, 손님을 들이는 것을 사양한다는 ‘謝賓客(사빈객)’과 의미가 같다. ‘捐館舍(연관사)’의 경우, 살던 집을 버린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죽어서 집을 떠난다는 의미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

20) ‘賓(빈)’이 들어간 완곡 표현은 상고 시대에 중국 중원에서 살던 부족의 공통 시조인 ‘황제(黃帝)’에 대한 고사(古事)에서 유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황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용을 타고 손님으로 하늘로 올라가 옥황대제(玉皇大帝)를 만나 신선이 되다는 전설에 따른 표현이다. 이에 따라 ‘龍馭上賓(용어상빈)’, ‘龍馭賓天(용어빈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21) ‘용어(龍馭)’, ‘선어(仙馭)’ 또한 위 각주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다.

2) 공직자, 유명인의 죽음

공직자의 죽음을 완곡하게 나타내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표현은 주로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 사회의 안전에 힘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한편 유명인은 연예인과 같이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을 이른다든 점에서 공직자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다음은 한국어에서 공직자와 유명인의 죽음과 관련된 완곡 표현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5) 한국어:

- 가. 순직(殉職)하다, 순국(殉國)하다, 산화(散華)하다, 목숨을 바치다 등
 나. 물고(物故)하다, 별세(別世)하다, 타계(他界)하다, 서거(逝去)하다 등

(5가)는 공직자의 죽음을 나타내는 한국어 완곡 표현을, (5나)는 유명인과 관련된 것에 대한 예이다. (5가)의 ‘순직하다’는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소방공무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한편 ‘순국하다’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로, 사망한 군인에게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산화(散華)하다’가 있다. 이는 전장(戰場)에서 사망한 군인이나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목숨을 바쳐 항거한 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²²⁾.

(5나)의 경우 ‘물고하다’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인들의 죽음에도 쓰이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다. ‘물고하다’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을 뜻하는 한편, ‘별세하다’, ‘타계하다’의 경우 ‘세상을 떠나다’의 의미와 비슷하다. 이들 표현은 모두 노환으로 사망한 유명인에게 주로 쓰이는 편이다²³⁾. 한편 ‘서거하다’는 ‘사거(死去)하다’의 높임 표현으로, 주로 대통령의 죽음을 이룰 때 쓰인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어 표현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표현들도 사용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2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떠한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3) 나이가 젊은 유명인의 경우 대부분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6) 중국어:

가. 捐軀(연구), 就義(취의), 成仁(성인), 殉國(순국), 殉難(순란), 殉身(순신), 殉義(순의), 殉職(순직) 등

나. 與世長辭(여세장사), 星落(성락), 星隕(성운), 星亡(성망)

(6가)에서는 한국어에서도 사용되는 ‘殉國(순국)’, ‘殉職(순직)’²⁴⁾이 있으며, 그 외에 ‘捐軀(연구)’, ‘就義(취의)’, ‘成仁(성인)’ 등의 표현도 있다. 이 가운데 ‘연구’, ‘就義(취의)’²⁵⁾, ‘成仁(성인)’²⁶⁾, ‘殉義(순의)’는 ‘정의를 위한 희생’을 뜻한다. ‘殉難(순란)’은 전쟁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이른다. ‘점’에서 ‘산화하다’와 유사하며, ‘殉身(순신)’은 ‘목숨을 바치다’의 의미와 대응된다.

유명인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 (6나) 가운데 ‘與世長辭(여세장사)’는 현세와의 영원한 이별을 뜻한다. Yao Yan-jun(2014: 24)에 따르면 이 표현은 주로 공식적인 글이나 보도자료에서 훌륭한 인물의 사망에 경의를 드러낸다. 한편 정치, 연예, 예술, 스포츠 등의 방면에서의 유명인, 즉 ‘스타’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명성(明星)’이 사용된 표현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星落(성락)’, ‘星隕(성운)’, ‘星亡(성망)’ 등이 있다. 이는 단어는 한국어와 달리 사망한 유명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두루 쓰이는 특징이 있다.

3) 일반인의 죽음

일반인의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은 크게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청년, 노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성별에 따른 것은 중국어에서만 나타나며, 모두 사자성어의 형식을 취한다.

먼저 한국어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일반인의 죽음 관련 표현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여기에서는 고유어로 구성된 관용구가 나타나기는 하나, 한자어로 된 표

24) 이들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는 ‘이신순국(以身殉國)’, ‘이신순직(以身殉職)’이 있다.

25) 인의(仁義)와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의미로, 《맹자(孟子)》에서 언급된 ‘사신취의(捨身就義)’에서 온 말이다.

26) ‘사신취의(捨身就義)’와 의미가 같으며, 《논어(論語)》에서 나타난 ‘살신성인(殺身成仁)’에서 온 말이다.

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제시한 예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 (7) 한국어: 돌아가다, 가다, 세상을 떠나다, 세상을 등지다, 운명(殞命)하다, 영면(永眠)하다, 잠들다, 잘못되다, 잔디찰방, 눈에 흙이 들어가다, 손가락을 놓다 등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일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통 현세로 떠나 내세로 간다는 의미와 잠과 관련한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의 예로는 ‘돌아가다’, ‘가다’, ‘세상을 떠나다/등지다’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잠들다’, ‘영면(永眠)하다’ 등이 있다. 이외에 ‘운명(殞命)하다’는 목숨이 끊어져 고인이 되었음을 뜻하며, ‘잔디찰방²⁷⁾’과 ‘눈에 흙이 들어가다’는 매장(埋葬)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다. ‘손가락을 놓다’는 손가락이 중요한 식사 도구라는 점에서 비롯된 말이다. 한편 ‘잘못되다’는 사고나 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이른다든 점에서 다른 표현에 비해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사망한 이의 나이에 따라서도 죽음과 관련된 표현을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은 미성년자, 청년, 노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 자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연령대에 따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8) 한국어:

- 가. 무복지상(無服之殤), 상상(上殤), 중상(中殤), 하상(下殤) 등
 나. 요절(夭折), 단절(短折), 요사(夭死), 요상(夭殤), 요서(夭逝), 요찰(夭札), 요축(夭促), 요함(夭陷), 절사(折死), 조사(早死), 조서(早逝), 조세(早歲) 등
 다. 작고(作故)하다, 별세(別世)하다, 타계(他界)하다, 선종(善終), 천수(天壽)를 다하다, 천명(天命)을 다하다 등

(8가)는 아동 또는 미성년자의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 표현의 예이다. ‘무복지상(無服之殤)’은 상복(喪服)을 입지 않는 장례라는 의미를 지니며, 7세 이하인 아동의 죽음을 이르는 말이다²⁸⁾. ‘상상(上殤)’, ‘중상(中殤)’, ‘하상(下殤)’은 죽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달리 선택되는 말로, ‘상상’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혼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장상(長殤)’과 같은 말로 쓰인다. ‘중상’은 12세부터 15세 사이, ‘하상’은 8세

27) 무덤의 잔디를 지키는 사람을 뜻하며, 죽어서 땅에 묻힘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28)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무복지상(無服之喪)’이 있으나, 상복 없이 하는 장례로서 장례의 형식은 갖추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것을 이른다.

에서 13세 사이에 사망함을 나타낸다.

청년의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을 제시한 (8나)에서는 나이가 젊거나 시기가 이름을 뜻하는 ‘夭(요)’, ‘조(早)’가 붙어 젊은 나이, 또는 이른 나이에 사망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요사(夭死), 요상(夭殤), 요서(夭逝), 요찰(夭札), 요촉(夭促), 요함(夭陷)’은 모두 ‘요절(夭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그 외의 다른 표현들도 그러하다. 다만, ‘조사(早死), 조서(早逝), 조세(早歲)’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를 지니며, ‘단절(短折), 절사(折死)’는 세상에 살았던 시간이 짧다는 뜻으로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요절의 대상은 주로 20~30대인 사람으로 간주되기는 하나, 20대 미만에게도 적용된다.

(8다)는 노인의 죽음에 관한 완곡 표현으로, ‘별세하다’, ‘타계하다’는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작고하다’는 고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모두 대상의 죽음을 높이는 말이다. 이러한 높임의 뜻은 나머지 표현에도 나타난다. ‘선종(善終)’은 ‘선하게 살다 복되게 끝마침’을 뜻하는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준말이며, ‘천수(天壽)를 다하다’와 ‘천명(天命)을 다하다’는 ‘타고난 수명이 끝나다’의 뜻으로 노인의 죽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중국어에서는 일반인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중국어 또한 사망자의 나이에 따라 달리 쓰이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령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먼저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의미에 따라 분석한 뒤 미성년자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완곡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일반인의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9) 중국어:

- 가. 沒了(없었다), 不在了(안 계셨다), 去了(갔다), 走了(갔다), 過去了(갔다), 上路了(길에 올랐다), 撒手塵寰(인간 세상을 떠나다), 撒手人寰(인간 세상을 떠나다), 與世長辭(세상을 떠나다)
- 나. 閉眼(눈을 감다), 睡着了(잠들었다)
- 다. 完了(끝났다), 不行了(글렀다), 咽氣(숨을 거두다), 停止呼吸(호흡을 멈추다), 伸腿兒(다리를 뻗다)
- 라. 翹辮子(땅은 머리를 추어올리다), 吹燈(등불을 불어서 끄다), 回老家(고향으로 돌아가다), 見馬克思(마르크스를 만나다)

(9가)에서는 세상을 떠나 존재가 사라지는 의미와 관련된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세상을 떠나다’, 또는 ‘갔다’를 뜻하는 표현인 ‘撒手塵寰(인간 세상을 떠나다), 撒手人寰(인간 세상을 떠나다), 與世長辭(세상을 떠나다)’, ‘去了(갔다), 走了(갔다), 過去了(갔다)’ 등과 내세로 떠나는 과정을 뜻하는 ‘上路了(길에 올랐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沒了(없었다), 不在了(안 계셨다)’ 등 또한 포함된다²⁹⁾.

(9나)는 ‘눈을 감다’, ‘잠들다’와 같이 잠과 관련된 표현의 의미가 은유적 기제로 확장되어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예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閉眼(눈을 감다), 睡着了(잠들었다)’ 등이 있으며, 이들 표현은 죽음이 주는 슬픔과 공포감을 감소시킨다. (9다)에서는 생명 활동의 끝을 나타내는 예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체 기능의 완전한 정지를 나타내는 ‘完了’, 이미 늦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不行了(글렀다)’가 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신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咽氣(숨을 거두다), 停止呼吸(호흡을 멈추다)’, ‘伸腿兒(다리를 뻗다)’ 등의 표현도 존재한다.

(9라)는 중국에서만 존재하는 완곡 표현의 예로, ‘吹燈(등불을 불어서 끄다)’는 사람의 생명을 불로 간주하여 불이 꺼지는 것을 죽음에 빗댄 말이다. ‘翹辮子(뺨은 머리를 추어올리다)’의 경우 청나라 시기에 나온 말로, 사형 집행인이 죄인의 변발을 잡아 올린 후 참수하였던 데에서 나온 표현이다. ‘見馬克思(마르크스를 만나다)’는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 집권기에 처음 언급된 표현으로,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징을 따른 것이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죽음에 관한 중국어 완곡 표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10) 중국어:

가. 夭亡(요망), 夭折(요절), 殤(상), 殤折(상절), 殤夭(상요), 上殤(상상), 中殤(중상), 下殤(하상)

나. 夭沒(요몰), 夭枉(요왕), 夭促(요촉), 夭喪(요상), 夭短(요단), 夭絕(요결), 夭謝(요사), 夭札(요찰), 短世(단세), 短命(단명), 短壽(단수), 短歷(단역), 不終(불종), 福輕命薄(복과 명이 가볍다)

다. 善終(선종), 壽終(수종), 百歲(백세), 天年(천년), 天명(天命), 考終年(고종년), 壽

29) ‘歸地府(지부로 돌아가다)’, ‘下地獄(지옥에 내려가다)’, ‘上西天(서천으로 가다)’ 등 표현도 존재하지만, 내세로 이동하는 의미를 지니는 말로,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완곡 표현으로 다루지 않는다.

終正寢(수종정침), 壽終內寢(수종내침), 入土(흙에 들어가다)

(10가)는 미성년자, (10나)는 청년의 죽음을 완곡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나열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일찍 사망하였음을 뜻하는 ‘夭(요)’, ‘殤(상)’, ‘短(단)³⁰⁾’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어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다. 다만 중국어에서 ‘夭亡(요망), 夭折(요절)’은 미성년자에게 사용하며³¹⁾, ‘上殤(상상)’, ‘中殤(중상)’, ‘下殤(하상)’의 정의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1963)에 따르면 ‘상(殤)’에 대하여 ‘上殤(상상)’은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사람이 사망함을 뜻하며, 12세부터 15세 사이는 ‘中殤(중상)’이라고 하며, 8세에서 11세 사이는 ‘下殤(하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10나)에서 ‘不終(불종)’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不得善終(불득선종)’의 준말이며, ‘福輕命薄(복과 명이 가볍다)’는 살았던 삶이 너무 짧아 행복을 누릴 겨를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이다.

(10다)는 노인의 죽음을 뜻하는 중국어 완곡 표현의 예이다. 수명을 뜻하는 ‘天年(천년)’, ‘天命(천명)’과 이를 끝까지 누렸다는 의미의 ‘考終年(고종년)³²⁾’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百歲(백세)’는 긴 세월을 뜻하는 말로,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바와 상통한다. 또한 ‘入土(흙에 들어가다)’는 매장의 과정에서 유래한 말로, 한국어의 ‘잔디찰방, 눈에 흙이 들어가다’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대상의 성별에 따라 달리 선택하여 사용하는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표현은 청년과 노인의 경우에서 나타나는데, 그중 청년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해당하는 표현은 모두 사자성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중국어:

가. 英年早逝(영년조서), 壯志未酬(장지미수), 天妒英才(천투영재)

나. 香消玉碎(향소옥쇄), 玉碎香埋(옥쇄향매), 葬玉埋香(장옥매향), 珠沉玉隕(주침옥인), 玉碎珠殘(옥쇄주잔), 玉碎珠沉(옥쇄주침), 沉珠璧碎(침주벽쇄), 蘭摧玉折

30) ‘短’이 쓰인 표현 가운데 ‘短歷’은 경험이 짧다는 뜻으로, 젊은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31) 중국에서 사람의 天年(천년)은 120세이고, 그 절반도 안 되는 60세는 ‘夭(요)’라고 한다. 12년은 1折(절)이다. 72세까지 살면 6折(절)이다. 따라서 열두 살 이전에 죽은 것은 夭折(요절)이라 불리며 한折(절)도 살아보지 못했다.

32) 타고난 수명을 모두 누렸다는 뜻의 ‘享盡天年(享盡天年)’에서 비롯된 말이다.

(난최옥절)

다. 壽終正寢(수종정침)

라. 壽終內寢(수종내침)

(11가, 나)는 청년의 죽음을 예들러 나타내는 표현의 예로, (11가)는 남성에게, (11나)는 여성에게 사용되는 것들이다. (11가)에서는 젊은 남성의 죽음을 표현할 때 주로 재능과 포부에 관련한 표현이 나타난다. ‘英年早逝(영년조서)’는 창창한 나이에 죽었음을, ‘壯志未酬(장지미수)’는 원대한 포부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³³⁾, ‘天妒英才(천투영재)’는 하늘이 뛰어난 인재를 시기하여 데려갔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1나)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향기와 구슬에 비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에 제시된 예를 살펴보면 ‘香(향)’, ‘玉(옥)’, ‘珠(주)’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1나)의 예는 ‘향기를 잃다’ 또는 ‘구슬이 부서지다’라는 뜻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잃는 일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여성을 화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蘭摧玉折(난최옥절)’이 그러하다. 종언선(2019: 26)에 따르면 이 표현은 ‘난초가 꺾이고 구슬이 부서지다’의 뜻을 나타낸다.

(11다, 라)는 각각 노인 남성과 여성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의 예이다. 해당 예에서 각각 제시된 ‘壽終正寢(수종정침)’, ‘壽終內寢(수종내침)’은 (10다)에서 언급한 ‘壽終(수종)’과 같은 말로 쓰인다. ‘壽終正寢(수종정침)’은 남자가 천수를 다하고 정방(正房)에서 죽는 것을, ‘壽終內寢(수종내침)’은 여자가 천수를 다하여 내방(內房)에서 죽는 것을 나타낸다.

3.1.1.2. 종교에 따른 죽음 관련 완곡 표현

한국과 중국은 종교적 배경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므로 ‘불교’, ‘도교’, ‘기독교’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불교와 도교는 한국과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공인된 종교이며, 기독교는 근래에 들어 인정된 종교이다. 기독교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교단에서,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관리하

33) ‘영년(英年)’은 20세에서 40세까지를 가리키고, ‘장지(壯志)’는 ‘원대한 포부’라는 뜻이다. 이들 단어는 중국어에서 남성의 포부를 지칭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므로 기독교 관련 표현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후술할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1) 불교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불교가 종교로서 공인된 바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불교에서 죽음을 이르는 완곡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열반(涅槃)’과 ‘원적(圓寂)’이다. 이에 대해 다음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가. 한국어: 오는 28일(음력 9월20일)은 성철 스님이 열반한(涅槃) 지 꼭 25년이 되는 날이다.

〈경향신문〉, 2018. 10. 15.

나. 중국어: 你是出家人, 還不省得佛門中圓寂便是死?

(너는 출가한 사람인데, 불문(佛門)에서 원적하면 죽는 줄 몰랐어요?)

〈수호지(水滸傳)〉, 제119회

(12가)는 ‘열반’이 사용된 한국어 텍스트의 예로, 열반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불생불멸(不生不滅)’로 들어갈 일종의 상태를 가리킨다. (12나)는 ‘원적’이 사용된 중국 드라마의 대사를 예문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적에서 ‘원(圓)’은 ‘공로와 덕행이 완벽하거나 복과 덕, 지혜를 모두 지니다’라는 뜻이며, ‘적(寂)’은 ‘안정과 적멸(寂滅) 또는 모든 번뇌(煩惱)에서 영원히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다. 이 두 단어와 대응하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두 언어에서 불교적 배경에 따른 죽음을 말할 때 많이 사용되고 사용방법은 동일하다(종언선, 2019: 32).

위에서 설명한 두 단어 외에도 불교에서는 죽음을 대한 다른 완곡 표현도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의 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13) 한국어: 입적(入寂), 적멸(寂滅), 입멸(入滅), 타계(他界), 좌화(坐化), 귀원(歸元)

(13)에 제시된 것 가운데 ‘입적, 적멸, 입멸’은 원적이나 열반과 같이 생사의 번뇌에서 벗어난 최고의 경지를 뜻한다. ‘타계’는 불교의 십계(十界)³⁴ 가운데 인간계를 떠나

다른 세계로 간다는 뜻이며, ‘좌화(坐化)’는 앉은 채로 입적함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귀원’은 본원(本元)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주로 승려의 죽음을 이르는 말이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어에서 불교와 관련된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은 죽음을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일에 비유한 한국어와는 달리 불교의 내세관 및 윤회(輪回) 사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와 관련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4) 중국어: 遷寂(천적), 遷化(천화), 歸西(귀서), 無常(무상), 轉世(전세), 登蓮界(등연계), 見佛祖(견불조)

(14)에서 ‘遷寂(천적)’, ‘遷化(천화)’는 사람이 죽으면 정신이 육체를 떠난다는 불교적 믿음에 따라 ‘떠나다’를 의미하는 ‘遷(천)’으로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歸西(귀서)’는 극락(極樂)이 서쪽에 있다는 교리에서 기인한 말이다. ‘無常(무상)’은 세상 모든 사물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며, ‘轉世(전세)’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음 생에 들어가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윤회 사상에 입각한 표현이다. 한편 ‘登蓮界(등연계)’는 연꽃의 세계로 떠난다는 뜻을 지니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연꽃은 불교의 성물이자 상징이며, 연꽃의 세계는 바로 부처가 있는 불국(佛國)을 가리키며 죽음을 불국에 들어간 것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見佛祖(견불조)’는 불교의 시조, 즉 석가모니를 만난다는 뜻이다.

2) 도교

도교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는 고구려 시기에 전파되었고, 이는 하늘과 인간이 곧 하나라는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따라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신선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종교이자 철학 사상에 해당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도교 관련 표현에서 하늘과 신선에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는데, 다음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십계는 ‘십법계(十法界)’라고 하며, 중생의 세계인 미계(迷界)와 깨달음을 얻은 자의 세계인 오계(悟界)를 합하여 열 가지로 분류된 불교의 세계관이다. 미계는 지옥계(地獄界), 아귀계(餓鬼界), 축생계(畜生界), 수라계(修羅界), 인간계(人間界), 천상(天上界)의 여섯 가지로, 오계는 성문계(聲聞界), 연각계(緣覺界), 보살계(菩薩界), 불계(佛界)의 여섯 가지로 나뉜다.

(15) 가. 한국어: 등선(登仙), 우화(羽化), 귀천(歸天), 승천(升天), 등천(登天), 황천(黃泉)

나. 중국어: 蟬蛻(선세), 蝶化(접화), 物化(물화), 物故(물구), 登仙(등선), 登眞(등진), 成仙(성선), 仙逝(선서), 仙去(선거), 仙游(선유), 尸解(시해), 返眞元(반진원), 跨鶴(과학), 騎鶴(기학), 騎鶴歸西(기학귀서)

(15가)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주로 하늘과 신선에 대한 표현이 다수를 이룬다. ‘등선(登仙)’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우화(羽化)’는 ‘우화등선(羽化登仙)’에서 온 말로, 날개가 돋친 듯 날아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늘과 신선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귀천(歸天)’, ‘승천(升天)’, ‘등천(登天)’ 또한 앞선 바와 같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15나)는 중국어의 예로, 한국어보다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다수 발견된다. ‘蟬蛻(선세)’와 ‘蝶化(접화)’는 모두 변화의 뜻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는 재생(再生)의 개념과 동일시되는 ‘환골탈태(換骨奪胎)’로, 매미가 허물을 벗고 성체가 되는 것에 빗댄 것이다. 후자는 장주지몽(莊周之夢)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자아와 외부 세계와의 구별을 잊어버리는 경지, 즉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이러한 ‘蝶化(접화)’는 곧 죽음을 도교에서의 최고의 경지에 비유한 것으로, 불교에서의 열반과 유사하다.

‘物化(물화)’와 ‘物故(물구)’는 ‘蝶化(접화)’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경지로써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며, ‘登仙(등선)’, ‘登眞(등진)’, ‘成仙(성선)’, ‘仙逝(선서)’, ‘仙去(선거)’, ‘仙游(선유)’는 사람이 죽어 신선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표현은 모두 죽음을 마치 신선처럼 훌쩍 떠나는 것으로 미화시켜 현세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비유적 의미로, 종교적인 색채를 반영하고 있다(常敬宇, 1995: 52). 또한 ‘尸解’는 몸을 남겨두고 혼백만 빠져나가 신선이 되는 도교의 비술을 의미한다.

한편 ‘返眞元(반진원)’에서 ‘眞元(진원)’은 본원(本原) 또는 본질을 가리키는바, 이 표현은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跨鶴(과학)’, ‘騎鶴(기학)’, ‘騎鶴歸西(기학귀서)’는 공통적으로 학이 나타나는데, 학은 도교의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十長生)에 속하는 동물이자 선계(仙界)의 존재이다. 이러한 점에 따라 세 표현은 인간은 죽어서 학을 타고 신선의 세계로 간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기독교

기독교는 한국과 중국 모두 불교와 도교에 비해 전파된 시기는 늦은 편이나, 현재는 두 나라 모두 꾸준히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 기독교에서의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은 모두 천국, 즉 신의 세계에 빚댄 것들이다. 이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

(16) 가. 한국어: 천국에 가다, 천당으로 가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신의 부르심을 받다, 순교하다, 주님 곁으로 가다

나. 중국어: 進天國(천국에 가다), 上天堂(하늘나라에 가다), 歸主(주님으로 돌아가다), 見上帝(하나님을 만나다), 殉教(순교)

(16)에서 제시한 기독교에서의 죽음 관련 완곡 표현 가운데 (16가)에서는 한국어 표현을, (16나)에서는 중국어 표현을 열거하였다. 두 나라의 언어 모두 천국과 신을 사용한 완곡 표현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대체로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앙의 수호를 위한 죽음은 ‘순교(殉教)’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다만, ‘신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표현은 중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국어 특유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3.1.1.3. 사망 원인에 대한 죽음의 완곡 표현

사망 원인에 대한 죽음 관련 완곡 표현 또한 다양한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 이 유형에는 죽음을 자의에 의한 것인가,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죽음 관련 표현을 ‘자살’과 ‘변고’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살

자살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로, 그 방법에 따라 여러 표현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어보다 중국어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다음에 제시된 예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17) 가. 한국어: 자재(自裁), 자결(自決), 자진(自盡), 투강(投江), 투신(投身),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나. 중국어: 自裁(자재), 輕生(경생), 輕身(경신), 短見(단견), 尋短見(심단견), 短

計(단계), 自盡(자진), 跳樓(도루), 投河(투하), 投纜(투현), 吊頸(조경), 懸梁(현량), 自縊(자액), 抹脖子(말발자), 自剄(자경), 伏劍(복검), 服毒(복독), 仰藥(양약)

(17가)는 한국어, (17나)는 중국어의 자살 관련 완곡 표현을 나열한 것이다. (17가)의 ‘자재(自裁)’, ‘자결(自決)’, ‘자진(自盡)’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이다. ‘자재(自裁)’가 일반적인 의미라면, ‘자결(自決)’은 의분을 참지 못하거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을 나타낸다. 또한 ‘자진(自盡)’은 식음을 끊거나, 병들어도 약을 먹지 않아 스스로 죽음에 이른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세 표현 간에 차이가 있다.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는 현대에 들어 많이 쓰이는데, ‘극단적’의 의미와 자살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표현들은 중국어에서도 ‘自裁(자재), 自盡(자진)’로 사용되며, 그 의미는 한국어와 같다.

‘투강(投江)’, ‘투신(投身)’은 각각 ‘몸을 던지다’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투강(投江)’은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로 (17나)의 ‘投河(투하)’와 의미가 같다. 한편 ‘투신(投身)’은 죽기 위하여 몸을 던진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투강(投江)’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17나)의 ‘跳樓(도루)’와 대응될 수 있겠으나, ‘跳樓(도루)’는 죽기 위해 높은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뜻한다는 점에서 ‘투신(投身)’과 차이가 있다.

(17나)에서 ‘輕生(경생)’, ‘輕身(경신)’, ‘短見(단견)’, ‘尋短見(심단견)’, ‘短計(단계)’ 또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나, 이들 표현의 뜻은 본래 부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輕生(경생)’, ‘輕身(경신)’은 스스로의 몸 또는 생명을 가벼이 여긴다는 뜻을, ‘短見(단견)’, ‘尋短見(심단견)’은 생각이 짧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短計(단계)’는 ‘졸렬한 계획’이라는 뜻으로, 모두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자살 방식에 따라 완곡 표현이 한국어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投纜(투현)’은 목을 매어 죽는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는 ‘吊頸(조경)’, ‘懸梁(현량)’, ‘自縊(자액)’ 등이 있다. ‘抹脖子(말발자)’, ‘自剄(자경)’, ‘伏劍(복검)’은 칼을 이용한 자살을 뜻한다. 한편 ‘服毒(복독)’, ‘仰藥(양약)’은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2) 변고

변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를 뜻한다. 여기에서는 병사(病死) 또한 변고의 하나로 보고 외부 요인에 의한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8) 가. 한국어: 병사(病死), 불기(不起)

나. 중국어: 病故(병고), 飛蛾撲火(비아박화), 不測(불측), 遇難(우난), 罹難(이난)

(18가)는 한국어의 예로, 모두 병에 따른 죽음 관련 완곡 표현만 나타나 있다. ‘병사(病死)’는 문자 그대로 병에 의한 죽음을 이르는 말로, 중국어의 ‘病故(병고)’와 대응된다. ‘불기(不起)’는 병들어 자리에 누워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병사(病死)’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중국어의 예가 제시된 (18나)에서 ‘飛蛾撲火(비아박화)’는 ‘불에 날아드는 나방’이라는 사자성어로, 스스로 자초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뜻한다. 한편 ‘不測(불측)’, ‘遇難(우난)’, ‘罹難(이난)’은 공통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음을 뜻한다. 다만 ‘不測(불측)’은 불행, 재난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遇難(우난)’은 크지 않은 사고, ‘罹難(이난)’은 큰 사고에 따른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중국에서만 쓰이는 완곡 표현이다(Yao Yan-jun, 2014: 29).

이상으로 죽음 관련 완곡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하는 유형의 표현은 신분, 종교, 사망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신분에 따른 죽음 관련 완곡 표현에서 일반인들의 죽음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 표현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이 장에서 앞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논의한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4> 한국어와 중국어의 죽음 관련 완곡 표현

분류		한국어	중국어
신분	고대	붕(崩), 붕어(崩御), 홍서(薨逝), 홍어(薨御), 홍거(薨去), 승하(昇遐), 등하(登遐), 승하(升遐), 천붕(天崩), 안가(晏駕), 용어(龍馭), 선어(仙馭),	붕(崩), 崩逝(붕서), 駕崩(가붕), 暴崩(폭붕), 崩諸(붕제), 晏駕(안가), 晏歸(안귀), 晚駕(만가), 登遐(등하), 升遐(승하), 千秋(천추), 萬歲(만세), 賓天(빈천), 賓空(빈공), 龍馭(용어), 長逝(장서), 大諱(대휘), 大优(대우), 大行(대행), 弃
	왕족, 고급 관료		

		<p>예척(禮陟), 척방(陟方), 빈천(賓天), 조락(殂落), 상빈(上賓)</p>	<p>天下(기천하), 弃群臣(기군신), 山陵崩(산릉붕), 薨(홍), 薨奄(홍엄), 薨逝(호서), 薨謝(홍사), 薨歿(홍몰), 薨隕(홍운), 捐賓客(연빈객), 捐館舍(연관사), 謝賓客(사빈객), 千秋萬歲(천추만세), 萬歲千秋(만세천추), 龍馭賓天(용어빈천)</p>	
일반사람들	일반적	<p>장서하다, 원서하다, 가다, 돌아가다, 떠나다, 뜨다, 넘어지다, 굶기다, 저버리다, 운명하다, 작고하다, 영면하다, 별세하다, 서거하다, 졸하다, 잠들다, 여의다, 사거, 잘못되다, 누워계시다, 잔디잘방</p> <p>세상을 떠나다, 세상과 이별하다, 세상을 버리다, 세상을 하직하다, 세상을 등지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불귀의 객이 되다, 눈을 감다, 숨을 거두다, 고동을 멈추다, 유명을 달리하다, 목숨을 잃다, 일어나지 못하다, 눈에 흙이 들어가다, 골로 가다, 밥순가락을 놓다, 저승에 가다.</p>	<p>辭世(사세), 去世(거세), 故世(고세), 過世(과세), 下世(하세), 永眠(영면), 長眠(장면), 安息(안식), 永別(영별), 永訣(영결), 訣別(결별), 身亡(신망), 身故(신고), 亡故(망고), 已故(이고), 沒了(없었다), 去了(갔다), 走了(갔다), 不在了(안 계셨다), 過去了(갔다), 上路了(길에 올랐다), 撒手塵寰(인간 세상을 떠나다), 撒手人寰(인간 세상을 떠나다), 與世長辭(세상을 떠나다), 閉眼(눈을 감다), 睡着了(잠들었다), 完了(끝났다), 不行了(글렀다), 咽氣(숨을 거두다), 停止呼吸(호흡을 멈추다), 伸腿兒(다리를 뻗었다), 送命(목숨을 잃다), 翹辮子(뺨은 머리를 추어올리다), 吹燈(등불을 불어서 끄다), 回老家(고향에 돌아갔다), 見馬克思(마르크스를 만나다)</p>	
	미성년	<p>무복지상(無服之殤), 상상(上殤), 중상(中殤), 하상(下殤)</p>	<p>夭亡(요망), 夭折(요절), 殤(상), 殤折(상절), 殤夭(상요), 上殤(상상), 中殤(중상), 下殤(하상)</p>	
	젊은이	<p>요절(夭折), 단절(短折), 절사(折死), 요사(夭死), 요상(夭殤), 요서(夭逝), 요찰(夭札), 요축(夭促), 요함(夭陷), 조사(早死), 조서(早逝), 조세(早歲)</p>	<p>夭沒(요몰), 夭枉(요왕), 夭促(요축), 夭喪(요상), 夭短(요단), 夭絕(요절), 夭謝(요사), 夭札(요찰), 短世(단세), 短命(단명), 短壽(단수), 不終(불종),</p>	<p>남</p> <p>英年早逝(영년조서), 壯志未酬(장지미수), 壽終正寢(수종정침), 天妒英才(천투영재)</p>

			福輕命薄(복과 명이 가볍다)	葬玉埋香(장옥매향), 珠沉玉隕(주침옥인), 玉碎珠殘(옥쇄주잔), 玉碎珠沉(옥쇄주침), 沉珠璧碎(침주벽쇄), 蘭摧玉折(난취옥절), 壽終內寢(수종내침)
	노인	선종(善終), 천수(天壽)를 다하다. 천명(天命)을 다하다.	善終(선종), 壽終(수종), 百歲(백세), 天年(천년), 天命(천명), 考終年(고종년), 壽終正寢(수종정침), 壽終內寢(수종내침), 入土(흙에 들어가다)	
	공직자, 유명인	작고하다, 하직하다, 하세하다, 기세하다, 별세하다, 서거하다, 숨지다, 희생하다, 순직하다, 순국하다, 산화, 물고하다, 목숨을 바치다, 유명을 달리하다.	與世長辭(여세장사), 犧牲(희생), 就義(취의), 捐軀(연구), 獻身(헌신), 光榮(영광), 成仁(성인), 殺身成仁(살신성인), 殉職(순직), 以身殉職(이신순직), 以身殉國(이신순국), 捨身就義(사신취의), 星落(성락), 星隕(성운), 星亡(성망)	
종교	불교	열반(涅槃), 원적(圓寂), 입적(入寂), 적멸(寂滅), 입멸(入滅), 타계(他界), 좌화(坐化), 귀원(歸元), 귀천(歸天), 승천(升天), 승하(升遐)	涅槃(열반), 圓寂(원적), 入寂(입적), 歸寂(귀적), 寂滅(적멸), 入滅(입멸), 滅度(멸도), 滅安(멸안), 歸元(귀원), 坐化(좌화), 遷寂(천적), 遷化(천화), 歸西(귀서), 脫體(탈체), 無常(무상), 轉世(전사), 登蓮界(등연계), 見佛祖(석가모니를 만나다)	
	도교	등선(登仙), 우화(羽化), 귀천(歸天), 승천(升天), 등천(登天), 황천(黃泉)	蟬蛻(선세), 蝶化(접화), 羽化(우화), 物化(물화), 物故(물구), 登仙(등선), 成仙(성선), 仙逝(선서), 仙去(선거), 仙游(선유), 遁化(둔화), 尸解(시해), 登眞(등진), 返眞元(반진원), 跨鶴(과학), 騎鶴(기학), 騎鶴歸西(기학귀서)	
	기독교	천국에 가다, 천당으로 가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신의 부르심을 받다, 순교하다	進天國(천국에 가다), 上天堂(하늘나라에 가다), 歸主(주님으로 돌아가다), 見上帝(하나님을 만나다), 殉教(순교)	

사 망 원 인	자살	자재(自裁), 자결(自決), 자진(自盡), 투강,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다.	輕生(경생), 輕身(단신), 短見(단견), 尋短見(심단견), 短計(단계), 投河(투하), 抹脖子(말발자), 投縊(투현), 吊頸(조경), 懸梁(현량), 自盡(자진), 自縊(자액), 自裁(자재), 自剄(자경), 伏劍(복검), 服毒(복독), 仰藥(양약)
	병고	병사(病死), 불기	病故(병고), 飛蛾扑火(비아박화), 不測(불측), 遇難(우난), 罹難(이난),

3.1.2. 질병과 신체장애 관련 완곡 표현

의학이 진보하기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는 작은 병이라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 신앙이나 금기를 통하여 질병이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도 암과 같이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에 걸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표현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노동과 생산의 차원에서 장애인을 해약이라고 여겼으며, 그에 따라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표현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한국에서는 1989년, 중국에서는 1990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에 주목하게 되면서 장애인을 낮잡아 보는 시선은 이전보다 덜한 추세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질병과 신체장애에 관한 완곡 표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질병은 일반적인 통증을 나타내는 것부터 천연두, 홍역, 암 등의 큰 질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신체장애는 시각, 청각에서 지능, 정신 등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3.1.2.1. 질병 관련 완곡 표현

예로부터 중국과 한국 모두 질병은 죽음과 함께 대표적인 금기로 사람들이 꺼리고 두려워하는 대상이다. 고대사회에서는 금기 현상에 따라 특정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여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암과 같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완곡하게 이르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병에 걸리다’보다 ‘아프다’, ‘불편하다’ 등 우회적인 표현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언어에서 질병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여러 종류가 있다. ‘광범위한 신체 불편’, ‘설사’, ‘천연두’, ‘홍역’, ‘폐병’, ‘암’, ‘성병’ 등이 그것이다. 이들 유형에 대한 한국어의 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한국어:

- 가. 광범위한 신체 불편: 아프다, 불편하다, 편찮다, 안색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누워 있다
- 나. 암: 켄서, 불치병, 안 좋은 것, 심각한 것, 고치기 힘든 병
- 다. 폐병: 가슴앓이
- 라. 천연두: 마마, 호환마마, 별상마마, 손님, 큰 손님, 고운 마님, 시두(時痘) 손님,
강남별성, 손님자국, 두창(痘瘡)
- 마. 홍역: 작은 손님, 소역(小疫), 마진(麻疹)
- 바. 문둥병: 나병(癩病), 한센병
- 사. 설사: 배탈 나다, 속이 안 좋다
- 아. 성병: 화류병(花柳病), 사교병(花柳病), 문명병(文明病)

(19)에 제시한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을 살펴보면, (19가)에서는 병에 걸린 상태를 일반적으로 ‘아프다’, ‘불편하다’, ‘편찮다’, ‘몸이 안 좋다’, ‘누워 있다’ 등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안색이 안 좋다’는 화자가 상대방의 얼굴색을 통하여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19나)에 따르면 암은 현대에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에 속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안 좋은 병’, ‘심각한 것’, ‘고치기 힘든 병’, ‘불치병’, ‘켄서’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안 좋은 병’, ‘심각한 것’, ‘고치기 힘든 병’, ‘불치병’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병인가를 특정하지 않는 모호한 의미를 지님으로써 완곡 표현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켄서’는 암을 뜻하는 영어 단어 ‘cancer’에서 차용한 외래어로, 외래어가 주는 어감으로 완곡한 느낌을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다)의 경우 폐병을 ‘가슴앓이’로 지칭한다. (19라)에서는 천연두를 직접 언급하면 재앙이 온다고 믿고, 그에 따라 천연두를 지칭할 때에는 ‘마마’, ‘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마’는 주로 왕족을, ‘손님’은 외부에서 온 사람을 높이는 말로, 모두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에 해당한다. 옛날의 미신적인 사고방식에서 질병은 마치 어떤 악령 같

은 것이 있어서 오는 것이며, 그 악령에게 잘 보여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좋은 뜻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김미형, 2009: 84). 다시 말하면 천연두를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으로 달리 부르는 것은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역신의 노여움을 달래어 병을 이겨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손님마마’, ‘고운 마마’, ‘호환마마’, ‘별상마마’, ‘손님자국’, ‘큰 손님’, ‘시두(時痘) 손님’ 등은 모두 ‘마마’와 ‘손님’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또한 ‘강남별성’은 천연두를 관장하는 신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만드는 여신을 가리킨다.

한편 (19라)에 제시된 홍역은 예로부터 ‘마진(麻疹)’이라 불렀다. 그 외에도 당시에 ‘작은 손님’, ‘소역’이라고도 하였다. (19마)와 관련하여 Yao Yan-jun(2014)에서는 ‘문둥병’은 ‘나병’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학술적 성격이 강한 용어인 ‘나병’이나 ‘한센병’이 보다 완곡한 성질을 지닌 말이라 할 수 있다.

(19바)에서는 ‘설사병’을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으로 ‘배탈나다’ 또는 ‘속이 안 좋다’가 제시되어 있다. 소화기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면서 배설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심리에서 비롯된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19아)의 성병 관련 완곡 표현은 중국에서 유래된, 유곽(遊廓)에서 옮겨온 병을 완곡하게 이르는 ‘화류병’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사교병’은 사람 간의 사귀에 따라 생기는 병을, ‘문명병’은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새로 생긴 병을 가리킨다. 앞의 세 단어는 언중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성적 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비롯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19)에 제시된 것에 여드름과 부상에 관련한 완곡 표현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20) 중국어:

가. 광범위의 신체 불편: 不舒服(불서복), 不安(불안), 不好(불호), 不快(불쾌), 不便(불편), 不适(불적), 難受(난수), 抱恙(포양), 有恙(유양); 欠佳(결가), 欠安(결안), 不佳(불가), 不太好(불태호); 臉色不好(검색불호), 臥床不起(와상불기), 氣色不好(기색불호)

나. 암: 絕症(절증), 不治之症(불치지증), 不樂觀(불락관)

다. 폐병: 癆病(로병), 虛勞(허로)

라. 천연두: 出天花(출천화), 見喜(견희)

- 마. 홍역: 麻疹(마진)
- 바. 문둥병: 麻風(마풍)
- 사. 설사: 鬧肚子(료두자), 害肚子(해두자), 跑肚(포두)
- 아. 성병: 楊梅(양매), 花柳病(화류병), 暗疾(암질), 隱疾(은질), 疳瘡(감창)
- 자. 여드름: 青春痘(청춘두)
- 차. 부상: 桂花(괘화), 挂彩(괘채)

(20가)에서는 모두 몸의 상태가 편치 않거나 피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동일하다. 여기에서 ‘難受(난수)’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로움을 나타내며, ‘不適(불적)’, ‘不舒服(불서복)’는 몸의 상태가 편치 않다는 뜻을 지닌다. 또한 ‘欠安(결안)’, ‘欠佳(결가)’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바, 상태가 좋지 않음을 완곡하게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한다. 한편 ‘抱恙(포양)’, ‘有恙(유양)’은 높임의 의미를 지니며, ‘臥床不起(와상불기)’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다’, ‘臉色不好(검색불호)’, ‘氣色不好(기색불호)’는 ‘안색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암을 나타내는 완곡 표현은 (20나)에 나열되어 있는데, ‘絶症(절증)’과, ‘不治之症(불치지증)’은 ‘절망적인 병’, ‘불치병’의 뜻을 지닌다. 한편 ‘不樂觀(불락관)’은 상태가 낙관적이지 않음을 이르는 말로, 의사가 환자에게 암 선고를 내릴 때 환자가 느낄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0다)에서는 폐병을 ‘癆病(로병)’, ‘虛勞(허노)’로 표현한다. 이들 단어는 몸이 쇠약해지고 피로해지는 병을 이르는 말로, 폐결핵을 완곡하게 나타낸다.

(20라)는 천연두에 대한 완곡 표현의 예로, 여기에서는 ‘出天花(출천화)’, ‘見喜(견희)’가 제시되어 있다. ‘出天花(출천화)’는 하늘에서 내리는 꽃을, ‘見喜(견희)’는 ‘기쁜 일을 맞다’를 뜻한다. 이들 표현은 한국어와 같이 병을 피하거나 이겨내기 위하여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명명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천연두와 관련한 중국어 표현의 수는 한국어보다 적다.

(20마)에서는 한국어와 같이 홍역을 ‘麻疹(마진)’이라 이르고, 문둥병은 (20바)와 같이 ‘麻風(마풍)’으로 표현한다. (20사)에서는 설사병을 ‘鬧肚子(료두자)’, ‘害肚子(해두자)’로 표현하는데, 이들 표현은 각각 ‘뱃속이 소란스럽다’, ‘뱃속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鬧肚子(료두자)’, ‘害肚子(해두자)’는 모두 배설물보다는 복통에 집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跑肚(포두)’는 ‘달리는 뱃속’이라는 뜻으로, 설사병을 완곡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성병과 관련된 완곡 표현은 (20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楊梅(양매)’, ‘疔瘡(감창)’은 성병 가운데 매독(梅毒)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특히 ‘楊梅(양매)’는 매독에 걸렸을 때 생기는 부스럼을 이르는 말로, 본래 소귀나무 열매를 뜻한다. 이 표현은 소귀나무 열매와 매독의 부스럼과 외형상 비슷하다는 점에서 생겨났다. 또한 ‘暗疾(암질)’, ‘隱疾(은질)’은 모두 드러나지 않은 병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모호한 표현으로써 사람들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여기는 성적 질병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그 외에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에게 나타난다는 특징에 따라 (20자)와 같이 ‘靑春痘(청춘두)’로 사용한다. (20차)의 부상은 몸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는 모양을 빗댄 표현인 ‘挂花(괘화)’, ‘挂彩(괘채)’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지금까지 질병 관련 완곡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통증 및 불편감, 설사병, 성병, 여드름, 부상과 같이 경미한 것에서 암, 폐병, 천연두, 홍역, 문둥병 등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완곡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천연두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당시에 매우 큰 역병(疫病)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말로 달리 부름으로써 병을 피하려는 언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통증 및 불편감은 몸의 상태나 안색이 좋지 않다는 말로 대신하며, 설사병, 성병의 경우 보편적으로 배설물이나 증상을 바로 이르지 않고 그와 관련된 것으로 대신 표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논의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질병 관련 완곡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어와 중국어의 질병 관련 완곡 표현

구분	한국어	중국어
광범위의 신체 불편	아프다, 불편하다, 편찮다, 안색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누워 있다	不舒服(불서복), 不安(불안), 不好(불호), 不快(불쾌), 不便(불편), 不适(불적), 難受(난수), 抱恙(포양), 有恙(유양); 欠佳(결가), 欠安(결안), 不太好(불태호); 臉色不好(검색불호), 臥床不起(와상불기), 氣色不好(기색불호)
암	종양, 췌서, 불치병, 안 좋은 것, 심각한 것, 고치기 힘든 병	絕症(절증), 不治之症(불치지증), 不樂觀(불락관)

폐병	가슴앓이	癆病(로병), 肺病(폐병), 虛勞梅病(허노매병)
천연두	마마, 호환마마, 별상마마, 손님, 큰 손님, 고운 마님, 시두(時痘) 손님, 강남별성, 손님자국, 두창(痘瘡)	出天花(출천화), 見喜(견희)
홍역	작은 손님, 소역, 마진	麻疹(마진)
문둥병	나병	麻風(마풍)
설사	배탈 나다	鬧肚子(료두자), 害肚子(해두자), 跑肚(포두)
성병	화류병, 사교병, 문명병	楊梅(양매), 花柳病(화류병), 暗疾(암질), 隱疾(은질), 疳瘡(감창)
여드름		青春痘(청춘두)
부상		桂花(괘화), 掛彩(괘채)

3.1.2.2. 신체장애 관련 완곡 표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평등사상이 전파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의식이 짝트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체장애에 대한 완곡 표현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음은 한국어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에둘러 일컫는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국어:

가. 광범위한 장애: 장애인

나. 시각 장애: 시각 장애인

- 다. 청각 장애: 청각 장애인
- 라. 언어능력 장애: 언어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 마. 지적 장애: 지능 장애인, 지적 장애아
- 바. 지체 장애: 지체 부자유자(肢體不自由者), 지체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사람
- 사. 정신 장애: 정신 장애인

(21)과 같이 한국어에서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일컫는다. 물론 (21라)의 ‘말 못하는 사람’, (21바)의 ‘지체 부자유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정된 용어인 ‘장애인’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장애인’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병신, 불구자’와 같은 비하의 어감을 지닌 표현을 사용했다가 1980년대 초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복지법이 나오면서 ‘장애자’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자(者)’는 ‘놈-자’로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으로 인해 ‘사람-인’의 ‘인(人)’을 이 용해서 ‘장애인’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김미형, 2009: 86).

그 외에 ‘장애우(障礙友)’라는 표현이 나타난 적도 있다. 이 표현은 기존에 사회 내에서 비정상적인 존재로 격리된 장애인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지니는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우’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장애인을 부르기에 어색하다는 점과 장애인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에 따라 ‘장애우’는 철저하게 비장애인의 처지에서 만들어진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을 띠는 단어라고 간주하여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완곡 표현이 한국어보다 다양한 편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22) 중국어:

- 가. 광범위한 장애: 殘疾(잔질)/殘疾人(잔질인), 傷殘(상잔)/傷殘人士(상잔인사), 殘障(잔장)/殘障人士(잔장인사)
- 나. 시각 장애: 失明(실명), 視覺障礙者(시각 장애자)
- 다. 청각 장애: 重聽(중청), 耳背(이배), 失聰(실충), 失聽(실청), 听覺障礙者(청각 장애자)
- 라. 언어능력 장애: 語言障礙(어언장애), 口吃(구흘)

마. 지적 장애: 低智(저지), 智殘人(지잔인)

바. 지체 장애: 腿脚不方便(다리와 발이 불편하다), 腿脚不靈活(다리와 발이 안 민첩하다), 走路不便(걷는 게 불편하다)

사. 정신 장애: 精神失常(정신실상)

(22가)에서는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을 병 또는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를 뜻하는 ‘殘疾(잔질)/殘疾人(잔질인)’, ‘傷殘(상잔)/傷殘人士(상잔인사)’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22나)에서는 ‘視覺障礙者(시각 장애자)’ 외에도 시력을 잃은 상태인 ‘失明(실명)’으로 시각 장애인을 부르고, (23다) 또한 ‘聽覺障礙者(청각 장애자)’와 함께 청력이 좋지 않거나 상실한 상태를 이르는 ‘重聽(중청)’, ‘耳背(이배)’, ‘失聰(실총)’, ‘失聽(실청)’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언어능력 장애는 (22라)와 같이 말을 더듬는 행동을 의미하는 ‘語言障礙(어언장애)’나 ‘口吃(구흡)’을 사용한다. (22마)는 지적 장애인을 완곡하게 부르는 말로 ‘弱智(약지)’ 대신 지능이 낮음을 뜻하는 ‘低智(저지)’, ‘智殘人(지잔인)’으로 표현한다. 그 외에 ‘智障(지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이 표현은 최근 중국 사회에서 완곡 표현으로서의 성질이 점차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 되었다.

(22바)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뜻의 ‘腿脚不方便(다리와 발이 불편하다)’, ‘腿脚不靈活(다리와 발이 안 민첩하다)’, ‘走路不便(걷는 게 불편하다)’로 사지가 불편한 사람을 이르는 데 사용되는 완곡 표현의 예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은 (22사)와 같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 ‘精神失常(정신실상)’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精神不正常(정신불정상)’이 있으나, 이 표현은 특정 상황에서만 완곡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온전한 완곡 표현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완곡하게 이룰 때 한국어는 몇몇 표현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장애인’이라는 표현 외에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이 목에서 제시한 한국어와 중국어에의 신체장애 관련 완곡 표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체장애 관련 완곡 표현

구분	한국어	중국어
광범위한 장애	장애인	殘疾(잔질), 傷殘(상잔), 殘障(잔장)
시력	시각 장애인	失明(실명), 視覺障礙者(시각 장애자), 盲人(맹인)
청력	청각 장애인	重聽(중청), 耳背(이배), 失聰(실충), 失聽(실청), 听覺障礙者(청각 장애자)
말하기 능력	언어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語言障礙(어언장애), 結巴(말더듬이), 口吃(구홀)
지능	지능 장애인, 지적 장애아	弱智(약지), 低智(저지), 智殘人(지잔인), 智障(지장)
사지	지체 부자유자 (肢體不自由者), 지체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사람	腿脚不方便(다리와 발이 불편하다), 腿脚不靈活(다리와 발이 안 민첩하다), 走路不便(걷는 게 불편하다)
정신	정신 장애인	精神失常(정신실장), 精神不正常(정신불정상)

3.1.3. 성 관련 완곡 표현

한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녀 관계와 관련된 것을 금기시하였다. 이는 유가에 기반한 것으로, ‘남녀유별(男女有別)³⁵⁾’의 덕목이 두 나라 사람의 머릿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중언선, 2019: 36). 이에 따라 현대에도 보수적인 성 의식을 갖게 되면서 성과 관련된 것을 저급하게 여기는 풍조가 남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언급할 때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 항에서는 성 완곡 표현을 성적

35)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중국어 표현으로 남녀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말이나 물건도 주고받지 못하는 제한적인 남녀 간의 교류를 이르는 ‘남녀수수불친(男女授受不親)’이 있다.

지향에 따른 성애(性愛)의 종류에 따라 이성애(異性愛), 동성애(同性愛)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3.1.3.1. 이성애 관련 완곡 표현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와 남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 ‘성’과 관련된 언어 표현도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이성(異性) 간의 완곡 표현을 ‘성기’, ‘성행위’, ‘피임기구’, ‘부적절한 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의 이성애 관련 완곡 표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3) 한국어:

- 가. 성기: 거기, 그것, 그놈, 거시기, 국부, 아래, 고추, 잠지, 물건, 고래 잡다, 심볼(symbol), 똥똥이, 소중이
- 나. 성행위: 관계(를 가지다), 밤일(하다), 방사(房事)하다, 잠자리(를 하다/가지다), 하다, (같이) 자다, 동침하다, 침대를 같이 쓰다, 사랑을 나누다, 책임질 일을 하다
- 다. 피임기구: CD
- 라. 성범죄 및 불륜: 폭행, 성폭행, 짓밟다, 유린하다, 희롱하다, 세컨드(second), 바람피우다, 바람이 나다, 배가 맞다, 외도하다, 오징어(를) 지다, 속도위반을 하다, 과속하다

(23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기에 대한 완곡 표현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유형에서는 지시어를 사용한 ‘거기’, ‘그것’, ‘그놈’, ‘거시기’를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아래’, ‘국부’, ‘물건’ 등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표현은 지시 대상을 모호하게 나타냄으로써 완곡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편 ‘고추’, ‘잠지’는 주로 남자아이의 성기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심볼(symbol)’은 ‘상징’을 뜻하는 영어 외래어로, 남성의 상징을 남자의 성기로 간주한 데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똥똥이’와 ‘소중이’는 은어로, ‘똥똥이’는 남성의 성기를, ‘소중이’는 여성의 성기를 이르는 말이다. 이 가운데 ‘소중이’는 ‘소중한 곳’을 뜻하며, 주로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그 외에 ‘고래 잡다’는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포경(捕鯨)’과 ‘포경(包莖) 수술’과 발음이 같다는 특징에서 생겨난 표현이다.

(23나)는 남녀 간의 성행위에 관한 완곡 표현의 예로, 이 유형에서는 ‘관계’ 또는 ‘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어휘 범위를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성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는 연상에 따라 ‘밤일’, ‘잠자리’, ‘(같이) 자다’, ‘같이 자다’, ‘동침하다’, ‘침대를 같이 쓰다’ 등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성관계가 일반적으로 연애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랑을 나누다’, ‘책임질 일을 하다’ 등의 표현이 있다.

(23다)에서는 남성용 피임기구인 콘돔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CD’는 콘돔의 영어 명칭인 ‘condom’의 음절 두 문자가 줄어든 말이다. 이 표현은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의 약어인 ‘CD’와 발음이 같으므로 지시 대상이 모호해진다는 특징에 따라 완곡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³⁶⁾.

(23라)에서는 성범죄 및 불륜에 대한 표현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폭행’, ‘성폭행’, ‘짓밟다’, ‘유린하다’, ‘희롱하다’는 성범죄에 관련한 표현이고, ‘배가 맞다, 외도하다, 오쟁이(를) 지다’는 불륜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성범죄 관련 표현 가운데 ‘희롱하다’는 성희롱을, ‘폭행’, ‘성폭행’, ‘짓밟다’, ‘유린하다’는 강간을 에둘러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짓밟다’, ‘유린하다’는 여성의 순결을 대상으로 생겨난 표현에 해당한다.

한편 불륜 관련 표현 가운데 ‘오쟁이(를) 지다’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일을 나타내며, ‘세컨드(second)’는 아내 외에 따로 만나는 여자를 뜻하는 영어 외래어 표현이다. 그리고 ‘바람 피우다’, ‘바람이 나다’는 ‘외도하다’와 뜻이 상통한다. 그 외에 혼전 성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배가 맞다’, ‘속도 위반하다’, ‘과속하다’가 있는데, 이 가운데 ‘속도 위반하다’, ‘과속하다’는 혼전에 임신하게 된 상황을 나타낸다.

한편 중국어의 이성애 관련 완곡 표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보다 더 많은 수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다음이 그 예이다.

(24) 중국어:

가. 성기: 私處(사처), 隱處(은처), 下面(아래), 下体(하체), 那里(거기), 那個(그것), 命根子(가장 중요한 것), 陽具(양구), 老二(둘째), 小弟弟(어린 남동생), 小妹妹(작은 여동생)

나. 성행위: 風月(풍월), 雲雨(운우), 顛鸞倒鳳(전란도봉), 翻云覆雨(번운복우), 巫山雨云(무산운우), 流事(유사), 入港(입항), 交合(교합), 交歡(교환), 合歡

36) 그 외에도 2004년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에서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한 콘돔의 애칭으로 ‘애필(愛必)’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애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향의로 사용을 중단하였다.

(합환), 行房(행방), 房事(방사), 同房(동방), 同室(동실), 夫妻的事(부부의 일), 那事(그 일), 做愛(make love), 性生活(성생활), 偷吃禁果(금과를 몰래 먹다), 那個了(그 일 했다), 做運動(운동하다), 睡覺(잠을 자다), 上床(침대에 오르다), 肉体上的接觸(육체적인 접촉), 發生關係(관계를 갖다), 夫妻生活(부부생활), 滾床單(시트에서 굴러다니다)

다. 피임기구: 避孕套(피임투), 安全套(안전투), 小雨衣(소우의)

라. 성범죄 및 불륜: 吃豆腐(두부를 먹다), 非禮(무례하다), 占便宜(덕을 보다), 玷污(더럽히다), 第三者(제삼자), 小三(소삼), 二奶(이내), 插足(삽족), 外遇(외우), 出軌(출궤), 偷情(투정), 有染(유염), 勾搭(구담), 拈花惹草(넘화야초), 劈腿(양다리를 걸치다), 腳踏兩只船(양다리를 걸치다), 戴綠帽子(녹색 모자를 씌우다), 暗度陳倉(암도진창), 風流韻事(풍류운사), 桃色新聞(도색신문), 生米煮成熟飯(생쌀이 이미 밥이 되었다), 先上車后補票(차를 타고난 후에 표를 끊다)

성기에 관한 완곡 표현을 다룬 (24가)에서는 ‘下面(아래)’, ‘下体(하체)’, ‘那里(거기)’와 같은 남녀 공용 표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小妹妹(작은 여동생)’를 제외한 대부분의 표현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유사하다. 그뿐만 아니라 ‘那里(거기)’, ‘那個(그것)’, ‘下面(아래)’, ‘下体(하체)’와 같이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이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

한편 ‘小弟弟(작은 남동생)’, ‘小妹妹’는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陽具(양구)’, ‘命根子(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 ‘老二(둘째)’는 통속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부르는 말로, 각각 ‘양기를 지닌 물건’,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 ‘둘째(둘째)’라는 의미를 지닌다.

(24나)에서는 성행위에 관한 중국어 완곡 표현을 나열하였다. 이 가운데 ‘巫山雲雨(무산운우)’, ‘雲雨(운우)’, ‘翻云覆雨(번운복우)’는 중국 초(楚)나라 향왕(襄王)이 무산(巫山)에서 구름(雲)과 비(雨)를 관리하는 신녀(神女)와 밀회하였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면서 생겨난 표현이다. 또한 남녀 간의 정사(情事)를 나타내는 옛말인 ‘風月(풍월)’, ‘顛鸞倒鳳(전란도봉)’은 주로 고전소설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偷吃禁果(금과를 몰래 먹다)’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훔쳐 먹었다는 이야기에 빗대어 성관계를 도덕 규범을 어긴 행위로 간주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做愛(주애)’는 ‘사랑을 나누다’에 대응되는 영어 표현인 ‘make love’를 번역한

것이다. 또한 ‘行房(행방)’, ‘房事(방사)’, ‘同房(동방)’, ‘同室(동실)’은 남녀가 한 방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夫妻的事(부부의 일)’, ‘夫妻生活(부부생활)’은 부부 간의 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성행위를 예들려 표현한다. 또한 ‘發生關係(관계를 갖다)’는 ‘관계를 맺다’와 같은 의미이며, ‘做運動(운동하다)’, ‘滾床單(시트에서 굴러다니다)’, ‘肉体上的接觸(육체적인 접촉)’은 몸의 움직임 또는 신체 접촉이라는 의미에 따른 완곡 표현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流事(유사)’, ‘入港(입항)’, ‘交合(교합)’, ‘交歡(교환)’, ‘合歡(합환)’, ‘那事(그 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那事(그 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지시 대상으로 모호하게 표현한 것에 속하며, 나머지 표현들은 남녀가 하나 됨을 뜻한다.

중국어에서 피임기구와 관련된 표현은 (24다)과 같이 공통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避孕套(피임투)’ 외에 ‘安全套(안전투)’, ‘小雨衣(소우의)’가 있다.

(24라) 가운데 성범죄를 나타내는 완곡 표현은 ‘玷污(더럽히다)’, ‘吃豆腐(두부를 먹다)’, ‘非禮(무례하다)’, ‘占便宜(덕을 보다)’ 등이 있으며, 불륜의 경우 ‘第三者(제삼자)’, ‘小三(소삼)’, ‘二奶(이내)’, ‘外遇(외우)’, ‘出軌(출궤)’, ‘戴綠帽(녹색 모자를 씌우다)’, ‘暗度陳倉(암도진창)’ 등이 있다. 전자의 표현 가운데 ‘玷污(더럽히다)’은 강간을 완곡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여성의 순결이 더럽혀졌음을 뜻한다. 나머지 표현은 성희롱과 관련된 표현으로, ‘吃豆腐(두부를 먹다)’는 상갓집에서 내는 대표적인 음식이 두부 요리였으며,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얻어먹을 수 있는 특징을 남녀 관계에 적용한 표현이다. ‘占便宜(덕을 보다)’ 또한 앞에 언급된 내용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또한 ‘非禮(무례하다)’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뜻한다는 점에서 성희롱이 비도덕적인 행위임을 나타낸다.

불륜에 관한 완곡 표현 가운데 ‘第三者(제삼자)’는 ‘가정에 끼어드는 제삼자’라는 뜻에서 온 말로, ‘小三(소삼)’은 ‘第三者(제삼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또한 ‘二奶(이내)’는 내연녀를 뜻한다³⁷⁾. 그리고 ‘外遇(외우)’, ‘出軌(출궤)’, ‘戴綠帽(녹색 모자를 씌우다)’, ‘暗度陳倉(암도진창)’은 부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外遇(외우)’는 부부 이외의 남녀 관계를, ‘出軌(출궤)’는 궤도를 벗어난 것을 뜻하는바,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戴綠帽(녹색 모자를 씌우다)’, ‘暗度陳倉(암도진창)’은 종언선(2019)에 따르면, 두 표현은 중국 전통 풍속과 역사적 전고(典故)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戴綠帽

37) Yao Yan-jun(2014: 42)에서는 ‘중국 고대에는 一夫多妻制(일부다처제)를 실행했는데 돈 많은 집 안에는 하인들이 주인의 부인들 한테 순서대로 ‘大奶奶(첫째 부인)’, ‘二奶奶(둘째 부인)’, ‘三奶奶(셋째 부인)’이라고 불렀다. ‘二奶’는 여기에서 왔는데 꼭 두 번째 아니고 제일 젊고 예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녹색 모자를 씌우다)’은 민간 야설(野說)에서 녹색은 지위가 낮고 저열한 사람을 상징하던 것이 현대에 들어 바람을 피우는 사람으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또한 ‘暗度陳倉(암도진창)’는 한고조(漢高祖)가 진창(陳倉)에 남몰래 가서 삼진(三秦)을 평정하고 항우(項羽)의 기선을 제압하여 한(漢)나라를 세웠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暗度陳倉(암도진창)’은 남녀가 남몰래 사통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偷情(투정)’, ‘有染(유염)’, ‘勾搭(구탑)’, ‘拈花惹草(념화야초)’, ‘桃色新聞(도색신문)’, ‘風流韻事(풍류운사)’ 등이 있다. ‘桃色新聞(도색신문)’는 주로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나타나며, ‘拈花惹草(념화야초)’, ‘風流韻事(풍류운사)’는 바람기 많은 남자를 지칭한다.

그 외에 ‘先上車後補票(차를 타고난 후에 표를 끊다)’는 차를 탄 후에 표를 끊는다는 뜻으로, 혼전 임신을 가리킨다. 이는 혼전 임신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生米煮成熟飯(생쌀이 이미 밥이 되었다)’은 생쌀이 이미 밥이 되었다는 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혼전 임신을 의미한다.

3.1.3.2. 동성애 관련 완곡 표현

현대 사회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동성(同性) 간의 관계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종언선(2019)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동성애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소 상승하였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2018년에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인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동성애자는 이전과 달리 점차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성애 관련 완곡 표현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한국어에 대한 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5) 한국어: 성소수자, 게이(gay), 레즈비언(lesbian), 교봉(交朋)

(25)의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정체성,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성적 특징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 성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게이(gay)’, ‘레즈비언(lesbian)’은 영어 외래어로, ‘게이(gay)’는 본래 ‘동성애자’를 달리 이르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킨다. ‘레즈비언(lesbian)’은 고대에 여성의 동성애가 성행한 에게해의 레스보스(Lesbos)섬과 관련지어 붙여진 이름이다. 여성의 동성애와 관련된 다른 표현으로는 ‘교봉’이 있다.

중국어의 동성애 관련 완곡 표현은 한국어보다 그 수가 다양하다. 다음에 제시된 예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 (26) 중국어: 斷袖(소매를 자른 남자), 龍陽(용양), 分桃(분도), 外寵(외충), 同志(동지), gay, 基友(기우), 基佬(기로), 耽美(탐미), BL(boys love), 斷背(단배), 百合(백합), 拉拉(라라), 蕾絲(레즈), 蕾絲邊(레즈비언)

(26)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同志(동지)’를 사용한다. ‘斷袖(소매를 자른 남자)³⁸⁾, ‘龍陽(용양)³⁹⁾, ‘分桃(분도)⁴⁰⁾, ‘外寵(외충)⁴¹⁾은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들 표현은 모두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할 때는 대부분 ‘gay’를 사용하며, 해음으로 만들어진 ‘基友(기우)’, ‘基佬(기로)’를 쓰기도 한다. 그 외에 ‘BL’은 영어 ‘boys love’의 준말이다. ‘耽美’는 ‘탐미주의(耽美主義)’에서 온 말로, 현대에는 남성 간의 사랑을 뜻한다. ‘斷背(단배)’는 중국 영화 ‘단배산(斷背山)’의 제목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 영어 ‘lesbian’을 음차한 ‘蕾絲邊(레즈비언)’, ‘蕾絲(레즈)’, ‘拉拉(라라)’로 부른다. ‘百合(백합)’은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어보다는 중국어 표현이 더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국어에서는 남녀 간 성행위와 남성 동성애의 경우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성 관련 완곡 표현을 언어와 유형에 따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38) 한나라 애제(哀帝)가 사랑하던 남자인 동현(董賢)과 함께 낮잠을 잘 때, 애제의 소매를 베고 잠든 동현이 깨지 않도록 자신의 소매를 자른 데에서 유래하였다.
 39) 전국시대 사람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이다.
 40) 위나라 영공(靈公)이 마자하(彌子瑕)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었을 때, 마자하는 영공이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 좋아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41)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미소년을 뜻한다.

<표 7> 한국어와 중국어의 성 관련 완곡 표현

구분		한국어	중국어
이성 (異性)	성 기관	거기, 그것, 그놈, 거시기, 자신, 무엇, 국부, 아래, 잠지, 물건, 고래 잡다, 페니스(penis)	私處(사처), 隱處(은처), 下面(아래), 下體(하체), 那里(거기), 那個(그것), 命根子(가장 중요한 것), 陽具(양구), 老二(둘째), 小弟弟(어린 남동생), 小妹妹(작은 여동생)
	성 행위	관계, 밤일, 일, 방사, 잠자리, 자다, 같이 자다, 책임질 일을 하다, 관계를 가지다, 밤일하다, 잠자리를 가지다, 침대를 같이 쓰다, 상관하다, 사랑을 나누다	風月(풍월), 雲雨(운우), 顛鸞倒鳳(전란도봉), 翻云覆雨(번운복우), 巫山雨云(무산운우), 流事(유사), 入港(입항), 交合(교합), 交歡(교환: 즐거운을 나누다), 合歡(합환), 行房(행방), 房事(방사), 同房(동방), 同室(동실), 夫妻的事(부부의 일), 那事(그 일), 做愛(make love), 性生活(성생활), 偷吃禁果(금과를 몰래 먹다), 那個了(그 일 했다), 做運動(운동하다), 睡覺(잠을 자다), 上床(침대에 오르다), 肉体上的接觸(육체적인 접촉), 發生關係(관계를 갖다), 夫妻生活(부부생활), 滾床單(시트에서 굴러다니다)
	콘돔	CD	避孕套(피임투), 安全套(안전투), 小雨衣(소우의)
	부적절한 관계	폭행, 성폭행, 따먹다, 짓밟다, 희롱	吃豆腐(두부를 먹다), 非禮(무례하다), 占便宜(턱을 보다), 玷污(더럽

		히다), 强暴(폭행)
	세컨드(second)	第三者(제삼자), 小三(소삼), 二奶(이내), 插足(삽족)
	바람피우다, 바람이 나다, 배가 맞다, 외도하다, 오쟁이(를) 지다, 속도 위반하다. 과속하다	外遇(외우), 出軌(출궤), 偷情(투정), 有染(유염), 勾搭(구탑), 拈花惹草(념화야초), 劈腿(양다리를 걸치다), 脚踏兩只船(양다리를 걸치다), 戴綠帽子(녹색 모자를 씌우다), 暗度陳倉(암도진창), 風流韻事(풍류운사), 桃色新聞(도색신문), 生米煮成熟飯(생살이 이미 밥이 되었다), 先上車后補票(차를 타고난 후에 표를 끊다)
동성(同性)	성소수자, 호모(homo), 커밍아웃(coming out), 게이(gay), 레즈비언(lesbian), 교봉	斷袖(소매를 자른 남자), 龍陽(룽양), 分桃(분토), 外寵(외충), 同志(동지), gay, 基友(기우), 基佬(기로), 耽美(탐미), BL(boys love), 斷背(단배), 百合(백합), 拉拉(라라), 蕾絲(레즈), 蕾絲邊(레즈비언)

3.1.4. 생리적 현상 관련 완곡 표현

생리 현상 관련 완곡 표현은 배설과 여성의 생리 현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소변과 대변에 관한 것들이 있으며, 배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화장실과 관련된 완곡 표현이 함께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월경(月經) 및 임신에 관한 표현이 존재한다.

3.1.4.1. 배설 관련 완곡 표현

배설은 인간의 삶에서 일상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불결하고 창피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설물과 화장실을 언급할 때에도 완곡 표현을 사용한다. 다음은 한국어의 배설 관련 완곡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27) 한국어

- 가. 소변: 소마, 소피(所避), 소변(小便), 작은 것, 쉬(쉬야), 물 버리다, 지도를 그리다
- 나. 대변: 대변, 큰 것, 응가, 뒤를 보다, 뒷일을 보다, 큰일 보다
- 다. 화장실: 먼데, 뒷간, 변방, 소마간, 해우소, 작은 집, restroom, 위생실, 화장실, 화장을 고치고 오다, 손 씻고 오다, 모처(某處)에 가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27가)는 소변⁴²⁾, (27나)는 대변, (27다)는 화장실에 관한 완곡 표현의 예이다. 이 가운데 (27가, 나)에서는 배설물과 배설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예가 제시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변’과 ‘대변’이라는 한자어의 의미에 따라 ‘작은 것’, ‘큰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27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마’, ‘소피(所避)’, ‘물 버리다’ 등의 표현이 있는 한편, (27나)의 경우 대변을 보는 일을 ‘뒤를 보다’, ‘뒷일을 보다’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쉬(쉬야)’, ‘응가’는 유아어에 해당하며, ‘지도를 그리다’는 어린아이가 잠을 자면서 잠자리에 소변을 누는 것을 뜻한다.

(27다)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화장실⁴³⁾’뿐 아니라 화장실을 완곡하게 지칭

42) 김미형(2009: 77)에서는 ‘오줌 누다’와 ‘소변보다’는 매우 다른 어감을 지니며 그 쓰임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오줌 누다’는 사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 쓰면 어감이 상스럽기 때문에 완곡 표현이 사용된다. ‘소변 보다’ 또한 지시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오줌 누다’와 같이 어감이 상스럽지는 않다. 이는 ‘변(便)’이 본래 ‘편안하다’의 의미로, 배설이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사람의 배설물을 지시하는 의미도 갖게 되면서 배설물을 달리 이르는 말이 되었다.

43) 김미형(2009: 80)에서는 ‘변소’는 ‘똥간, 변소간, 뒷간’ 같은 비속한 어감을 갖는 단어에 비하면 점잖지만, 재래식으로 지어진 용변 보는 곳이 연상된다는 점에서 ‘화장실’보다는 점잖고 완곡한 느낌을 주는 말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화장실’은 양변기가 설치되었고 수세식으로 물을 내리도록 설치된 곳을 지시하므로 좋은 어감을 주기 때문에 문물의 발달과 함께 명칭이 변화하였

하는 표현들이 있다. ‘먼데’, ‘뒷간’, ‘변방’, ‘작은 집’은 과거 한국의 가옥 구조에서 변소가 따로 떨어져서 작게 지어졌던 것이 ‘집’처럼 보여 부르게 된 표현으로, 변소의 전통적인 구조를 반영한 말이다(Yao Yan-jun, 2014: 36). ‘해우소(解憂所)’는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restroom’은 영어 표현으로, ‘화장실’, 또는 ‘세면실’과 대응된다.

그리고 배변 행위에 관한 표현은 ‘화장실에 가다’ 외에도 ‘모처(某處)에 가다’와 같이 화장실이라는 장소 자체를 모호하게 이르는 말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화장을 고치고 오다’, ‘손 씻고 오다’는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언급함으로써 배변 행위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의 경우 상대방에게 화장실에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말이다.

한편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와 같이 소변을 작은 것으로, 대변을 큰 것으로 표현한다. 다만 화장실 관련 완곡 표현의 경우 한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28) 중국어

가. 소변: 小号(소호), 嘘嘘(쉬쉬), 唱歌(창가), 小恭(소공), 解小手(해소수), 上小号(상소호), 畫地圖(화지도)

나. 대변: 大号(대호), 大恭(대공), 出恭(출공), 臭臭(취취), 上大号(상대호)

다. 화장실: 衛生間(위생간), 洗手間(세수간), WC(Water Closet), 一號(일호), 去方便一下(잠시 편하게 하러 가다), 出去一下(잠시 나갔다 오다), 失陪一下(잠시 실례하겠습니다)

(28가, 나)는 소변과 대변에 대한 중국어 완곡 표현으로, 소변은 ‘小号(소호)’, ‘小恭(소공)’, ‘解小手(해소수)’, 대변은 ‘大号(대호)’, ‘大恭(대공)’ 등이 있다. 이들 표현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소변을 작은 것, 대변을 큰 것으로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小恭(소공)’과 ‘大恭(대공)’, ‘出恭(출공)’은 종언선(2019: 45)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과거시험 응시자가 시험 도중에 대소변을 보러 잠깐 나갈 때 ‘出恭入敬(출공입경, 공손하게 출입하다)’이라 적힌 목패를 받게 된 것에서 유래한 이후 민간에도 확산된 표현이나, 현대에 들어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嘘嘘(쉬쉬)’, ‘臭臭(취취)’, ‘畫地圖(화지

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화장실’은 문자 그대로 화장을 하는 방으로, 화장실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부여될 수 있었던 표현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도)’는 한국어 ‘쉬(쉬야)’, ‘응가’, ‘지도를 그리다’와 각각 대응되며, 그중 ‘嘘嘘((쉬쉬)’와 ‘臭臭(취취)’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유아어에 속한다. ‘唱歌(창가)’는 소변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운남성(雲南省)에서 사용되는 완곡 표현이다.

(28다)와 같이 중국에서는 과거에 변소를 이르는 말인 ‘茅房(모방)’을 대신하여 ‘衛生間(위생간)’, ‘洗手間(세수간)’, ‘WC(Water Closet)’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衛生間(위생간)’은 화장실과 세면장 등을 총칭하는 말로, 실내에 변기, 세면대, 욕조 등의 위생설비를 갖춘 방을 뜻한다. ‘WC’는 영어 ‘water closet’의 준말로, 주로 공중화장실 표지로 사용된다. ‘일호(一號)’의 경우 왕소단(2010: 41)에 따르면 재래식 변기의 모양이 숫자 1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외에 속된 표현인 ‘如廁之事, 是頭號大事(여측지사, 시두호대사)’는 배설이 인체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일이라는 뜻으로, 이 표현 또한 완곡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배변 행위에 관한 표현은 ‘잠시 ○○○을 하러 가다’를 뜻하는 ‘去一下○○○’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去一下衛生間(잠깐 위생간에 가다)’, ‘去一下洗手間(잠깐 세수간에 가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잠시 편하게 하러 가다’를 뜻하는 ‘去方便一下(잠시 편하게 하러 가다)’, ‘잠시 나갔다 오다’라는 의미를 지닌 ‘出去一下(잠시 나갔다 오다)’는 처소가 생략된 모호한 표현에 속한다. 그 외에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와 동의어로 쓰이는 ‘失陪一下(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3.1.4.2. 여성의 생리 현상 관련 완곡 표현

예로부터 여성의 생리 현상 가운데 월경과 임신은 뭔가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이 한국이나 중국 두 나라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된 완곡 표현이 다양하게 발달해 왔다. 먼저 ‘월경’ 관련 완곡 표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월경은 여성의 2차 성징과 더불어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주기적으로 난자를 생성하면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몸 밖으로 생리혈이 배출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월경은 피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정의함으로써 금기시됐다. 이러한 양상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월경에 대한 완곡 표현 또한 다양하게 생겨났다. 한국어에 나타나는 월경 관련 완곡 표현은 다음과 같다.

(29) 한국어: 생리(生理), 그날이다, 그때, 몸엿것, 매직(magic)/마술, 달거리

(29)의 ‘달거리’는 과거 한국에서 여성의 월경을 부르는 표현이다. 지금은 ‘생리’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그날’, ‘그때’, ‘몸엿것’ 등으로 여성의 생리 현상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때’, ‘그날’의 경우는 지시어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결합하여 생리하는 날을 모호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매직(magic)/마술’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서양 외래어가 완곡 표현으로 쓰인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김홍석, 2008: 28).

중국어에서는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 편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30) 중국어: 月經(월경), 信水(신수), 月信(월신), 潮信(조신), 紅潮(홍조), 庚信(경신), 那天(그날), 來事兒了(일이 왔다), 例假(예가), 大姨媽(큰이모), 月事(월사), 特殊情況(특수상황)

(30)에 제시된 표현 가운데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月經(월경)’을 사용한다. 과거의 월경은 여자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어두운 비밀이었으나, 지금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발전으로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완곡 표현이다(조혜선, 1999). 또한 고대 중국에서는 여성의 생리를 ‘信水(신수)’, ‘潮信(조신)’, ‘紅潮(홍조)’, ‘庚信(경신)’으로 표현하였고, 현대에는 ‘月事(월사)’, ‘那天(그날)’, ‘來事兒了(일이 왔다)’, ‘例假(예가)’로 모호하게 표현한다. 이 가운데 ‘潮信(조신)’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소식을, ‘月信(월신)’은 달마다의 일이라는 뜻을 지닌다. ‘例假(예가)’는 ‘정기 휴가’라는 뜻으로, 한국의 생리 휴가 제도와 유사하다. 이 표현은 곧 제도적인 개념과 여성의 주기적인 생리 현상을 연결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大姨媽(큰이모)’는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월경에 대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완곡 표현이다. 이 표현은 여성들이 생리 기간의 예민한 감정 상태를 큰이모가 오는 날에 빗대어 표현한다. 앞의 이유에 따라 여성의 생리 현상을 ‘特殊情況(특수상황)’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여성의 임신에 대한 완곡 표현 또한 다양하게 발달해 왔다. 전통 사회에서는 임신 사실에 대해 완곡하게 말해야만 태아의 출생이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임신이라는 말이 금기시되었다(김미형, 2009: 73).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임신에 대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임신에 대한 완곡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

저 다음에 제시한 한국어의 예를 고찰하고자 한다.

(31) 한국어: 아기를 가지다, 아이서다, 몸이 무거워지다, 두 입이다, 기쁜 소식이 있다, 배부르다, 몸이 비지 않다, 여느 입이 아니다

(31)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임신’을 완곡하게 이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또한 임신에 대한 완곡 표현은 모두 산모의 신체적 상태 또는 배 속의 아이와 연결지어 만들어진다. 예컨대 ‘몸이 무거워지다’, ‘몸이 비지 않다’, ‘배부르다’는 전자의 요소가, ‘아이를 가지다’, ‘두 입이다’, ‘여느 입이 아니다’는 후자의 요소가 중심이 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임신 관련 표현이 한국어보다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에 제시한 예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다.

(32) 중국어: 有喜(유희), 懷喜(회희), 懷身(회신), 身喜(신희), 有了(생겼다), 懷上了(배었다), 有了身子(아이가 생기다), 大身子(임신하다), 大肚子(배부르다), 身子重(몸이 무겁다), 身懷六甲(신회육갑), 行動不方便(행동이 불편하다), 快做媽媽了(곧 엄마가 되다), 中獎(당첨되다)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임신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有喜(유희)’, ‘懷喜(회희)’, ‘身喜(신희)’라는 표현이 그 예이다. 또한 ‘有了(생겼다)’, ‘懷上了(배었다)’와 같이 주어를 생략하여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身(신)’은 임신을 말하며, 여자는 임신하면 ‘有身(유신)’, ‘懷身(회신)’이라고 부른다. 또한 ‘身懷六甲(신회육갑)’은 전설에서 하늘이 만물을 창조하는 시간인 ‘六甲(육갑)’을 품었다는 의미로, 여자의 임신을 나타낸다. 그 외에 산모의 상태나 배 속의 아이를 중심으로 한 표현은 ‘大肚子(배부르다)’, ‘大身子(임신하다)’는 각각 ‘큰 배’, ‘큰 생명의 씨앗’을 뜻하는 말이며, ‘行動不方便(행동이 불편하다)’, ‘快做媽媽了(곧 엄마가 되다)’, ‘中獎(당첨되다)’ 등의 관용구도 이에 포함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생리적 현상 관련 완곡 표현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한국어와 중국어의 생리적 현상 관련 완곡 표현

구분	한국어	중국어
배설	<p>소마, 소피, 소변, 적은 거, 쉬 소변보다, 소피보다, 소마보다, 소 매보다, 작은 것 하다, 작은 일보 다, 물 버리다, 쉬하다, 지도를 그 리다 대변, 큰 거, 응가, 뒤 대변보다, 뒤를 보다, 뒷일을 보 다, 응가하다, 큰일보다, 큰 것 하 다, 오래 걸리다. 화장실에 가다, 먼데를 보다, 화장 고치고 오다, 손 씻고 오다, 모처 에 가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p>	<p>小便(소변), 小解(소해), 小号(소 호), 嘘嘘(쉬쉬), 唱歌(창가), 小恭 (소공), 解小手(해소수), 上小号 (상소호), 畫地圖(화지도) 大便(대변), 大号(대호), 大恭(대 공), 臭臭(취취), 大解(대해), 解大 手(해대수), 上大号 (상대호), 出 恭(출공) 去一下衛生間(잠깐 위생간에 가 다), 去一下洗手間(잠깐 세수간에 가다), 去解手(거해수), 去方便一 下(잠시 편하게 하러 가다), 出去 一下(잠시 나갔다 오다), 失陪一 下(잠시 실례하겠습니다)</p>
	<p>변 소</p> <p>먼데, 뒷간, 변방, 소마간, 해우소, 작은 집, 위생실, 화장실, 나홀로 다방, WC, REST-ROOM</p>	<p>衛生間(위생간), 洗手間(세수간), WC, 一號(일호),</p>
여 성 의 생 리 현 상	<p>월경(月經)</p> <p>생리, 그날이다, 그때, 몸엿것, 매 직(magic)/마술, 달거리</p>	<p>月經(월경), 信水(신수), 月信(월 신), 潮信(조신), 紅潮(홍조), 庚信 (경신), 那天(그날), 來事兒了(일 이 왔다), 例假(예가), 大姨媽(큰 이모), 月事(월사), 特殊情況(특수 상황)</p>
	<p>임신</p> <p>아기를 가지다, 아이서다, 몸이 무 거워지다, 두 입이다, 기쁜 소식이 있다, 배부르다, 몸이 비지 않다, 여느 입이 아니다</p>	<p>有喜(유희), 懷喜(회희), 懷身(회 신), 身喜(신희), 有了(생겼다), 懷 上了(배었다), 有了身子(아이가 생기다), 大身子(임신하다), 大肚 子(배부르다), 身子重(몸이 무겁 다), 身懷六甲(신회육갑), 行動不</p>

			方便(행동이 불편하다), 快做媽媽了(곧 엄마가 되다), 中獎(당첨되다)
--	--	--	---

3.2. 심리 관련 완곡 표현

심리 관련 완곡 표현도 신체 관련 완곡 표현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심리는 주로 인간의 심리 현상, 즉 사람들이 내면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리킨다. 따라서 심리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을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하는지를 말해준다. 이 절에서는 지적, 요청, 거절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떠한 방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1. 지적 관련 완곡 표현

중국과 한국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 일반적으로 비유, 부정, 반문, 의문 등의 다양한 형식을 사용해 함축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33) 가. 한국어: 너무해요.

→ 이걸 좀 너무하지 않나요?

중국어: 太過分了。

→ 不管怎麼樣，這樣不是太過分了嗎？

나. 한국어: 저번에 빌려준 돈 왜 안 갚나요?

→ 혹시 제가 저번에 돈 빌려준 거 잊으셨나요?

중국어: 我借給你的錢爲什麼不還我？

→ 上次借給您的那個錢，您可能是忘了吧？

다. 한국어: 네 성적표를 봐 봐, 왜 매번 공부 열심히 안 해?

→ 네 성적표를 봤는데, 매일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아질 거야.

중국어: 看看你的成績表，爲什麼每次都不努力學習？

→ 看了你的成績表，覺得如果每天再努力學習一點會更好。

(33)은 완곡한 표현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가 제시되어 있다. (33가)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의문법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뒤에 일어날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게 해 준다. 여기에서는 중국어 예문에서 사용된 조사 ‘-嗎?’는 의문문에 실현되었을 때 추측의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뜻을 완곡하게 한다.

(33나)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일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상기하게 하도록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예문에서는 ‘혹시’와 ‘可能’과 같이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추가하면 완곡의 효과가 난다. 또한 중국어 예문에서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조사 ‘-吧’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화 내용을 더욱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33다)에서는 상대방의 학교 성적이 나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격려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약점에 대해 지적해야 할 때 비난이나 힐책이 아닌,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사용된다(김미형, 2000: 48).

3.2.2. 요청 관련 완곡 표현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 또는 제안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요청의 상황에서 완곡하게 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34) 가. 한국어: 돈 빌려 주세요.

→ 돈 있으면 좀 빌려 주실래요?

중국어: 請借我点錢。

→ 如果有錢的話可以借給我点嗎?

나. 한국어: 이 일을 해 주세요.

→ 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어: 這件事給我做一下。

→ 如果能給我做這件事的話就好了。

다. 한국어: 창문을 열어 주세요.

→ 저, 창문을 조금만 열어 주시겠어요?

중국어: 開一下窗戶。

→ 那個, 可以開一点点窗戶嗎?

(34가, 나)에서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할 때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면’과 ‘如果~的話’이 사용되었다. 또한 (34가)에서는 의문형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언어 책략에 해당한다. 또한 이 예문에 실현된 담화 표지 ‘좀’은 자신의 부탁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34나)에서는 ‘-면 좋겠다’, ‘-的話就好了’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듣기 좋으면서도 화자의 요청에 응해 줄 마음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 (34다)에서는 화자의 주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저’, ‘那個’와 작은 것을 지시하는 단어인 ‘조금만’, ‘一点点’이 실현되어 상대방이 느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35) 가. 한국어: 거기에 가지 마라.

→ 거기에 안 가는 게 더 좋겠어요.

중국어: 別去那里。

→ 不去那里更好。

나. 한국어: 창문 열어요.

→ 좀 덥지 않아요?

중국어: 開窗戶。

→ 不熱嗎?

한편 일상생활에서 명령의 상황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말이 딱딱하고 상대방의 오해를 쉽게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자주 요청의 방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35가)에서는 희망 표현이 명령 표현을 대신하고, (35나)에서는 직접적인 명령 대신 그와 관련된 것을 상대방에게 묻는 방법으로 은근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36) 가. 한국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봐요.

→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국어: 不要那樣做, 這樣做吧。

→ 依我看, 這樣做更好。

→ 這樣做怎麼樣? / 這樣做可以嗎?

나. 한국어: 냉면 말고 자장면을 먹어요.

→ 제 생각에는 자장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 자장면 어떤가요?

중국어: 別吃冷面, 吃炸醬面。

→ 我覺得炸醬面更好。

→ 炸醬面怎麼樣? / 吃炸醬面好嗎?

다. 한국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如有疑問, 希望前來諮詢。

(36)은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요청의 방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완곡 표현이다. 이는 단호하게 상대방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종용하기보다 화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6가, 나)에는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의문문과 화자의 관점을 제시하는 진술문이 제시되어 있다. 의문형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권유가 아닌, 쌍방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언어 장치에 해당한다. 또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依我看, 我覺得’과 같은 삽입구가 들어간 진술문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자가 받는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를 지닌다. 한편 (36다)에서는 ‘-기 바란다’, ‘希望’ 등으로 화자가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3.2.3. 거절 관련 완곡 표현

거절은 앞에서 다룬 화행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화행에 해당한다. 특히 거절은 타인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거절 화행의 수행은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거절 화행 또한 완곡 표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거절 화행에 나타나는 완곡 표현의 예를 나열한 것이다.

(37) 가. 한국어: 난 그거 못해요.

→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자.

→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 我做不了那个。

→ 過些時間再慮考一下吧。

→ 這是个好主意, 但現在可能沒有時間。

나. 한국어: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 그 이야기 나중에 들으면 안 될까요?

중국어: 我不想听你說那件事。

→ 那件事以后再听不行嗎?

다. 한국어: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 시간이 된다면 꼭 가겠어요.

중국어: 我不想去。

→ 如果有時間的話我一定會去的。

(37)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거절의 상황에 자주 사용하는 완곡 표현의 예이다. 위에 제시된 예문 모두 사실상 상대방의 요청에 대한 거절을 뜻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력이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루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상대방의 부탁에 직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당장 상대방의 부탁에 응할 여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체면을 덜 상하게 한다.

(37가)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고려해 보자는 모호한 표현과 여력이 없음을 언급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37나, 다)에서는 상대방의 부탁에 응할 것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거절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거절을 하는 경우, 거짓되게 찬성을 하여 듣기 좋게 하는 것은 완곡어가 아니다. 완곡어는 거짓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등가성을 어느 정도 전체로 한 상태에서 어감이나 화행 부담의 조절 등을 조정하여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김미형, 2000: 53).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중국어에서는 거절 관련 완곡 표현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표현은 성어에 해당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38) 只是兄弟一个人，也還是‘心有余而力不足’。

(단 하나뿐인 형제인데, 마음만 있지 여력이 부족해.)

(茅盾《子夜》)

(38)의 ‘心有余而力不足(심유여이력부족)’은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여력이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완곡한 거절 표현에 해당한다. 즉 이 표현은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상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 서는 거절 의사를 나타내는 고정적인 표현이 없으므로 대응하는 것이 없지만, ‘마음/생각은 굴뚝같지만’과 같은 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도와줄 의향은 있으나, 여력이 되지 않아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4. 한·중 완곡 표현 대조 분석

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완곡 표현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 지리적 위치가 가까우므로 유사한 언어 표현이 관찰된다. 이는 유가 사상의 영향으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지리적 환경, 민족심리와 성격, 사회 발전 상태 등으로 두 언어의 완곡 표현의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완곡 표현의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완곡 표현을 대조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4.1. 신체 관련 완곡 표현 대조 분석

4.1.1. 죽음 관련 완곡 표현 대조 분석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간은 보편적으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봉건 미신 사상과 귀신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와 문화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예의와 등급 제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완곡 표현이 각기 다르다. 고대 왕족과 고급 관료, 공직자, 유명인,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한 완곡 표현 양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두 나라 모두 종교적 영향으로 불교, 도교, 기독교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완곡 표현은 두 나라가 대응하는 표현이 많다. 한국어는 오래전부터 한자의 영향을 받아 생긴 한자어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한자어의 구성 형식은 중국어와 비슷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용어(龍馭)’, ‘요절(夭折)’, ‘우화(羽化)’ 등은 중국어의 ‘龍馭(용어)’, ‘夭折(요절)’, ‘羽化(우화)’와 일일이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배경도 비슷하여 두 나라의 완곡 표현의 형식에도 공통점이 많다. 첫째, ‘천국에 가다’, ‘賓天(빈천)’, ‘登蓮界(등연계)’ 등 ‘현세’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의 의미 지닌 표현 형식이다. 둘째, ‘잠들다’와 ‘睡着了(잠들었다)’처럼 수면을 은유하는 표현 형식이다. 셋째, 신체적 현상과 신체 기능의 중단으로, 예를 들면 ‘눈을 감다’, ‘停止呼吸(호흡을 멈추

다), ‘咽氣(숨을 거두다)’ 등 표현 형식이다. 넷째, ‘천명(天命)을 다하다’, ‘원적(圓寂)’, ‘壽終正寢(수종정침)’ 등 수명이 다하여 원만한 인생을 의미를 담은 표현들이 사용된다.

한편 죽음에 관련된 완곡 표현의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한국어를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 보면 한자어에서만 중국어의 한자와 대응하고 있다. 둘째, 완곡 표현의 양적인 면에서 한국어보다 중국어에서 더욱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자성어의 사용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撒手人寰(살수인환)’, ‘與世長辭(여세장사)’, ‘捨身就義(사신취의)’ 등이 있다. 반면에 한국어는 중국어보다 관용구로 실현된 완곡 표현이 많고 구성 방식도 더 자유롭다. 예를 들면 ‘세상을 버리다’, ‘신의 부르심을 받다’, ‘유명을 달리하다’ 등이 있다. 셋째, 중국어에서는 ‘英年早逝(영년조서)’, ‘壯志未酬(장지미수)’, ‘香消玉碎(향소옥쇄)’, ‘珠沉玉隕(주침옥인)’ 등 성별에 따른 죽음의 완곡 표현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여자에 대한 죽음과 관련된 완곡 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넷째, 두 언어 모두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에서는 기독교의 보급률이 더 높아서 ‘천국에 가다’, ‘천당으로 가다’ 등의 완곡 표현이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역사, 문화적 영향으로 불교와 도교에 관한 완곡 표현이 많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 체계로 인하여 ‘見馬克思(마르크스를 만나다)’ 등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어에는 해당되는 표현이 없다.

4.1.2. 질병, 신체장애 관련 완곡 표현 대조 분석

질병, 신체장애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질병에 대해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재앙이 오거나 죽음을 부른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심리와 이를 제거하려는 바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질병의 이름을 피하고 긍정적인 뜻을 가진 존경의 방식이나 좋은 말로 대신에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몸이 안 좋다’, ‘不舒服(편치 않다)’처럼 한·중 양국 모두 모호화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병에 걸리다’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암’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모호하게 ‘고치기 힘든 병’, ‘不治之症(불치지증)’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두 나라 모두 신체장애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이나 상처 최소화와 인권 보호에서도 완곡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질병, 신체장애에 관련된 완곡 표현의 차이점은 주로 언어의 구성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가슴앓이’처럼 특유한 합성어가 존재하고 ‘누워 있다’, ‘배탈 나다’와 같은 관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 대부분 단어로 존재하고 구성 방식도 더 풍부하다. 특히 신체장애와 장애인에게 지칭할 때 한국에서 보통 신체장애의 부위를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완곡한 어휘를 실현한다.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지능 장애인’ 등이 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중국어 단어의 의미를 통해 완곡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 ‘失(실)’자는 ‘잃어버리다’의 뜻으로 ‘失明(실명)’, ‘失聰(실청)’, ‘精神失常(정신실상)’ 등 여러 가지 단어로 각기 다른 신체장애를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암’을 바로 영어 ‘캔서’로도 부를 수 있는데 중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4.1.3. 성 관련 완곡 표현 대조 분석

한국과 중국은 전통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회피적인 심리를 가진다. 따라서 두 나라는 성 관련 완곡 표현 방식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한다. 한편 사회의 발전과 사상의 진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고 더욱 존중을 받는다. 따라서 동성애에 관련된 완곡 표현이 새롭게 생기고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성에 관련된 완곡 표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보다 중국어 완곡 표현의 수량이 더 많고, 역사와 문화가 유구하고 표현 방식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반면 한국어에서 성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둘째, 두 나라는 모두 자기 나라에 특유한 표현이 있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특유한 ‘바람을 피우다’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대응할 수 있는 표현이 없으며, 중국에서 ‘出軌(출궤)’, ‘戴綠帽子(녹색 모자를 씌우다)’는 한국에서 쓰지 않는다. 셋째, 한국에서 한자어와 고유어 이외에도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전해지는 사자성어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외래어 ‘섹스(sex)’, ‘콘돔(condom)’, ‘게이(gay)’ 등 있고, 중국어에서는 중국의 역사 이야기에서 유래된 어휘인 ‘暗度陳倉(암도진창)’이 사용된다. 넷째, 중국에서는 비유나 은유 지시를 사용한 완곡 표현이 많다. ‘滾床單(시트에서 굴러다니다)’, ‘巫山雨云(무산우운)’ 등은 비유나 은유의 방식으로 사용해 성 관련 표현 완곡하게 사용한다.

4.1.4. 생리적 현상 관련 완곡 표현 대조 분석

심리적 측면을 보면,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배설, 월경, 임신 등 생리적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고상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통적인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자순 후대’, ‘혈맥의 연속’을 중시하기 때문에 ‘임신’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쁜 소식이 있다’, ‘有喜(유희)’, ‘懷喜(회희)’ 등의 좋은 의미를 지닌 말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한편 생리적 현상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표현 방식이 많고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일부 완곡 표현은 본래의 완곡한 성격을 상실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듣기에 좋게 느끼거나 사회, 문화 환경과 맞게 새로운 표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변소’의 완곡 표현이 이제는 완곡한 성격을 상실하여 ‘위생실’, ‘화장실’ 등 새로운 완곡 표현이 생겨 대신 사용한다. 중국어에서는 ‘衛生間(위생간)’, ‘洗手間(세수간)’, ‘WC’ 등이 해당한다. 표현 방식을 보면, 한국과 중국 양국 언어에서 생리적 현상을 표현할 때 ‘대(大)’와 ‘소(小)’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오줌’에 대해 ‘소(小)’자를 사용하고 ‘똥’에 대해 ‘대(大)’자를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오줌을 누다’를 ‘소변하다’, ‘소마하다’, ‘작은 것 하다’로 표현하고 ‘똥을 누다’를 ‘대변을 보다’, ‘큰 것 하다’로 표현한다. 중국어에서는 ‘오줌을 누다’를 말할 때 ‘小便(소변)’, ‘解小手(해소수)’라는 표현이 있으며 ‘똥을 누다’에 대해 ‘大便(대변)’, ‘大恭(대공)’, ‘上大号(상대호)’ 등이 있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의성어의 표현 방식이 하는데, 예를 들어 ‘쉬하다’, ‘嘘嘘(쉬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리적 현상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비유와 은유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특징이 공통된다. 한국어에서 여성의 월경은 신비로운 인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직(magic)’, ‘마술’로 비유적인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어에서는 ‘월경’을 여성과 친한 친척인 이모로 비유하여 ‘大姨媽(큰이모)’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快做媽媽了(곧 엄마가 되다)’로 ‘임신’을 은유하여 표현한다. 공공장소에서는 ‘화장을 고치고 오다’, ‘손을 씻고 오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去方便一下(잠시 편하게 하러 가다)’, ‘出去一下(잠시 나갔다 오다)’, ‘失陪一下(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등 예의 표현 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생리적 현상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구성 방식으로 보면 한국어에서 관용어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어에서 단어와 연어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과거에 많이 쓰였던 완곡 표현들은 이제 거의 쓰지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인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有喜了(좋은 일이 있었다)’와 같이 고대 중국부터 쓰인 표현을 아직도 계속 쓰고 있다. 그리고 생리적 현상에 대해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모호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월경’에 대해 “特殊情况(특수 정황)”, ‘來事兒了(일이 왔다)’라고 하며 ‘임신’에 대해 ‘有了(있다)’, ‘懷了(배었다)’라고 한다. ‘변소’를 지칭할 때 두 나라는 문화의 차이에 따라 완곡 표현도 다르다. 한국에서 여성들은 평소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는 경우가 많아서 ‘화장실’로 완곡하게 표현하며,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변소’의 완곡 표현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영어 ‘watercloset’의 준말 ‘WC’는 중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4.2. 심리 관련 완곡 표현 대조 분석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심리 현상과 감정 표현에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지적, 요청, 거절 등의 상황에서 한·중 두 나라의 완곡 표현은 완전히 상응하지는 않지만,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의사소통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심리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거나 상대방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비슷한 언어 사용이 습관이 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어 ‘-(으)르까(요)?’와 중국어 ‘...怎麼樣?/...好嗎?’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자에게 행동할 선택권을 부여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 표현은 주로 청유 화행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요청 화행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다. 거절 화행은 단지 말의 차원에서 상대방의 의도나 요구에 대한 거부의 표현을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회문화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언어의 쓰임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한·중 두 언어에서 간접적인 거절이 많이 관찰된다. 이는 두 나라가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和(화)’를 중시하는 ‘中庸(중용)’사상에서 비롯되어 거절할 때는 주로 모호한 표현이나 완곡한 표현을 쓰고자 하는 것이다.

심리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한·중 두 언어에서 의문법과 반어법을 많이 사용한다. 완곡 표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의문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것이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청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

로 완곡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으)니까(요)?/-(으)래(요)?’, ‘-아/어 주시겠어요?’와 중국어 ‘...怎麼樣?’ , ‘...沒關係嗎?/...好嗎?’ 등 완곡 표현이 있다. 이런 형식은 상대방에게 열린 의문형으로 질문하여 대답의 여지를 주는 완곡 표현으로 강제성을 회피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완곡 표현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서술형 표현이 있다. 한국어의 ‘-(으)ㄴ/ㄷ 것 같다’, ‘-(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과 중국어의 ‘...的話就好了’, ‘我覺得...更好’ 등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단정적인 확인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거부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으)ㄴ/ㄷ 것 같다’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이나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발화를 모호하고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완곡 표현을 사용한다(류효선, 2012: 36).

한편 문장에서 높임법의 사용을 통해 완곡 표현을 사용한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한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모든 언어 가운데 한국어에서 특히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종결 표현에 따라 높임 관계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으)십시오’, ‘-(으)세요’는 ‘-(으)라’보다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개별 단어 ‘您’, ‘請’ 등 직접 존경이나 완곡한 뜻을 나올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높임 표현이 별로 없다(추풍희, 2009: 78).

이상 분석을 통해 심리적 현상에 대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완곡 표현은 모두 회피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화자와 청자의 심리 상태를 배려하기 위해 직접적이나 듣기에 좋지 않은 말로 피하며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런 완곡 표현은 듣기에 좋다는 점에서 해학, 유머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추기 효과를 위해 최대한 예의 바른 말씨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대부분 사람이 간접 요청 화행이 직접 요청 화행보다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직접 요청 화행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 요청 화행은 무조건 간접적일수록 예의가 바른 것이 아니다. 요청 화행은 말하는 대상, 장소, 대화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의가 바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습득할 때 무조건 간접 화행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화행 분석을 통해 올바른 화행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4.3. 분석 결과를 통한 문화적 배경 대조 분석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유가 사상을 근원으로 유사한 문화적 구조

와 문화적 심리를 지니고 있다. 두 나라는 예로부터 문화, 역사, 지리, 인문, 심지어 인종적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었다. 특히 인종적으로는 한국의 민족인 조선족은 중국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인구가 많은 민족으로 주로 동북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문화 교류와 융합을 통해 매우 유사한 생활 방식, 행동준칙, 문화 신앙, 풍속 습관과 언어 습관을 만들어 왔다. 특히 한자 문화와 유가 사상의 영향에 따라 두 나라는 비슷한 문화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당송 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한학자가 장안 등지로 유학하였기 때문에 두 나라 간 왕래가 빈번하였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한자와 한문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 한자가 전래한 이후, 한국은 계속해서 한자로 역사 서적을 편찬하고 교육 제도를 수정하여 한자는 사회의 일부 계층에서 전파되었다. 한자 전파의 표식은 한자어로 국가 명칭, 관료 명칭, 지역 명칭, 왕족 명칭을 바꾼 것이다. 불교의 전래에 따라 중국에서 있는 불교 단어도 한국에서 한자어로 전파되었다. 그때에는 전래한 불전은 모두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자와 한문의 널리 전파는 통일 이후 신라 시대의 경제, 제도, 학술, 예술 등의 발달에 대해 큰 추진력을 주는 것이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으며, 고려의 신앙과 사상을 지배한 것도 불교이었다. 따라서 불교 단어가 한자어로 많이 전해져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는 과거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한자와 한문이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유가 사상을 흡수하므로 고려의 초기와 중반에는 유가과 불교가 상대적으로 융합된 시기였다. 귀족 계급은 한자를 사용해서 시와 문장을 썼기 때문에 한자와 한문학을 더욱 발달시켰고 고려 가요와 고려 속요를 많이 남기었다. 조선 시대 세종 25년(1443)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 한글은 서민과 부녀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다. 대부분 사대부는 한글을 경시하고 한자나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한글과 한문이 혼합되어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조선 말 1895년 ‘한글과 한자의 혼합체 사용’이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글과 한자의 혼합체를 사용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글이 날로 널리 보급되며 한자나 한문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심지어 한자나 한문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의 한자는 각 시기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한자와 한문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한자어가 여전히 한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이며 완곡 표현에서도 잘 나타난다.

완곡 표현에서도 유가 사상의 처세 철학과 행동준칙 등을 실천하여 나타나는 것이

다. 특히 ‘가국(家國)’ 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은 한중 두 나라의 전통 윤리 문화 속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전체 사회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정신적 지주와 문화적 지향을 담고 있다. 이런 가족관념이 민족 감정을 담고 보여줄 수 있으며, 혈맥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유가 사상은 자손 후대가 널리 번영한 것, 즉 혈맥의 연속을 중시한다. 따라서 언어 표현에 격식을 차리고 금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은 유가 전통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보수주의 가치관은 유가 사회 공통의 특징이다. 두 나라는 모두 오랜 시간의 유가 가치관의 영향을 통한 보수적인 가치관과 자연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전통적 가치관은 서양 사회의 가치관과는 큰 차이가 있고, 또한 봉건사상의 유보하여 서구와 비교해 사람들은 사상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때문에 언어 표현에는 고려가 상대적으로 많고, 언어 사용을 보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는 외부의 침략으로 한국은 현대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1945년 이후에 한반도 남부에 미국 군대가 진주하면서 유가 문화는 서양 현대문명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한국은 서양의 시장경제체제와 선진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서양문화를 흡수하고 받아들였다. 이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상을 점점 더 개방적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완곡 표현을 사용할 때 감추기 위해 피하기보다는 예의 바르게 나타난 좋은 교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등급관념과 준비귀천의 사상도 한중 양국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경향이다. 유가의 ‘禮(예)’는 사회에서 준비의 윤리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규범이 되어 계급 및 준비의 윤리관을 발생하게 하였다(王立延, 1998: 158). 이것은 당시 고대사회가 계급에 따라서 사회계층을 엄격히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표현방법에도 엄격한 구별을 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사회의 진보에 따라 계급이 점점 사라지고 점차 계층의식이 약해지면서 대부분 사어(死語)가 되었다(서은경, 2010: 16). 특히 중국에서 봉건제도가 끝남에 따라 유가 사상 중의 등급관념과 준비 사상은 오랫동안 비판되고 배척되었다. 따라서 많은 과거의 완곡 표현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예의 문화를 중시하여 완곡 표현은 다 예절 바른 말씨와 공손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인다. 중국 사람들은 ‘겸양(謙讓)’을 중시하면서 겸양을 아름다운 교양인이 갖는 전통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처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진흔흔, 2016: 6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중 두 나라의 일상생활이나 언어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완곡 표현을 유형화하고, 특히 두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심리와 관련된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사용 양상을 대조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두 나라의 언어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완곡 표현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완곡 표현, 즉 금기어에 의한 완곡 표현,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변화에서 생겨나는 완곡 표현과 문화의 발전에서 생겨나는 완곡 표현으로 나누고, 사전, 인터넷 자료, 선행 연구 등을 참조하여 각 영역별로 쓰이는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는 한국어, 중국어와 한중 대조로 나누어 분석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완곡 표현의 개념과 특징을 생성 기제 및 대화 내 기능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완곡 표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곡 표현은 언어적,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둘째, 완곡 표현은 언어 환경에 의존한다.

셋째, 완곡 표현의 생성과 사용은 금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넷째, 완곡 표현은 지시 대상을 모호하게 나타낸다.

다섯째, 완곡 표현은 다양성과 가변성을 지닌다.

이러한 작업 외에 완곡 표현의 유형을 분류하고, 완곡 표현과 금기 표현 및 공손 표현의 관계도 각각 정리해 논의하였다. 완곡 표현의 유형은 ‘신체 및 심리 관련 완곡 표현’과 ‘사회 및 문화 관련 완곡 표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신체 및 심리 관련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체에 관한 완곡 표현은 다시 ‘죽음’, ‘질병 및 신체장애’, ‘성’, ‘생리적 현상’으로 나누며, 심리에 관한 완곡 표현은 ‘지적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로 나누어 분류하여 주제에 따른 한중 완곡 표현의 예시와 목록을 제시해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신분과 나이, 성별에 따라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완곡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종교 또는 대상의 사망 원인에 따라서도 많은 수의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죽음’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신분’, ‘종교’, ‘사망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신분’에 따른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을 ‘왕과 제후’, ‘영웅, 공직자, 유명인’, ‘일반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 또는 젊은 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이었다는 사실에 따라 나이와 성별에 따른 죽음 관련 완곡 표현은 일반인의 죽음 유형에서 고찰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종교적 배경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므로 ‘종교’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다시 ‘불교’, ‘도교’, ‘기독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불교와 도교는 한국과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완곡 표현이 큰 차이가 없으며, 기독교는 근래 들어 인정된 종교이고 한국에서 신앙하는 사람이 더 많으므로 관련된 완곡 표현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사망 원인’에 대한 죽음 관련 완곡 표현에서는 크게 ‘자살’과 ‘사고’로 나뉜다. 이 유형에서는 한국어보다 중국어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질병 및 신체장애에 관련된 완곡 표현에서 질병은 일반적인 통증을 나타내는 것부터 천연두, 홍역, 암 등의 큰 질병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신체장애는 시각, 청각에서 지능, 정신 등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 대부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으므로 한국이나 중국 모두 질병에 대한 완곡 표현이 대체로 많다. 신체장애에 대한 완곡 표현에서는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적고 보통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완곡하게 표현하며, 중국어가 단어의 의미를 통해 완곡 표현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것을 보인다.

성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성적 지향에 따른 성애(性愛)의 종류에 따라 이성애(異性愛)와 동성애(同性愛)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와 남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 ‘성’과 관련된 언어 표현도 다르게 나타나서 이성(異性) 간의 완곡 표현을 ‘성기’, ‘성행위’, ‘피임기구’, ‘부적절한 관계’로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현대 사회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남녀 간의 관계 이외의 동성(同性) 간의 관계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성(同性) 간의 완곡 표현도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두 언어에서는 모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인다.

생리적 현상 관련 완곡 표현은 배설과 여성의 생리 현상으로 크게 나누었다. 배설의 경우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변소, 또는 화장실과 관련된 완곡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한편, 여성의 생리 현상은 월경(月經)과 임신과 관련한 표현이 나타나왔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심리’라는 표현은 주로 인간의 심리 현상, 즉 사람들이 내면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리킨다. 따라서 ‘심리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을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하는지를 말해준다. 그중에서 지적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등을 대표적인 심리 현상으로 간주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대조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인간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라는 점에서 동물의 원시적 언어와 차별화된다. 진정한 대화와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청자의 심리를 배려한 완곡 표현은 개인주의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미덕이며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교류에서 생기는 마찰에서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과 중국 완곡 표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중 완곡 표현의 사용 양상은 특히 두 나라의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다만 사례 수집의 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완곡 표현의 유형 또한 신체, 심리에 관련된 것만 대조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한계들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강주현 옮김(1991), 《여자는 왜 여자답게 말해야 하는가》, 고려원, Lakoff, G.(1976),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Octagon Books.
- 광단양(2006),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곡 표현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김미형(2000),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 한말연구학회, pp.27~63.
- 김미형(2009), <한·영 완곡어의 대조 분석>, 《한말연구》 25, 한말연구학회, pp.61~112.
- 김옥(2011). <한·중 완곡어 대조연구>.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종수(2000),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獨語教育》 20,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pp.251~271.
- 김홍석(2008), <국어 어휘 범주의 완곡어 고찰>, 《한어문교육》,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20~37.
- 류효선(2012), <한국어 완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청주대학교 대학원).
- 마풍빈(2013), <한·중 완곡어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대구대학교 대학원).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 배성영(2012),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완곡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영남대학교 대학원).
- 서은경(2010), <중국어 완곡어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진주(2011), <한국어 교육용 완곡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 성미선(2009), <한국어 추측표현의 완곡어법 양상과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재기(2000), 《국어어휘론》, 서울, 집문당.
- 안병남(2004), <중국어 의사소통기능신장을 위한 문화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강원대학교 대학원).
- 왕소단(2011),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대학원).

- 왕효효(2011), <한국어 완곡 표현 교육 연구: 교재에 나타난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 용요요(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완곡 표현 대비 연구>, 석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갑남(2017), <중한 금기어와 완곡 표현 대조 연구 -죽음과 질병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41, pp.125~153.
- 이용주(1959), <완곡어법 소고>, 《국어교육》 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33~45.
- 이희진(2005), <금기 체계의 사례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전정미(2007), <요청화행에 나타난 공손 전략의 실현 양상>,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pp.247~268.
- 조미경(2005). <공손 전략으로서의 한국어 완곡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향숙(2013), <금기어와 한국인의 감성>, 《인간 · 환경 · 미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pp.97~118.
- 조혜선(1999). <완곡어법의 화용론적 설명>,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pp.303~316.
- 종언선(2019), <한중 완곡어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 진신(2012), <한·중 금기어의 변형 양상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 진흔흔(2016), <한·중 완곡 표현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채춘옥(2014), <한·중 대조를 통한 완곡 표현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혜진(2003), <中國語委婉語研究>, 석사학위논문(동국대 교육대학원).
- 추풍휘(2009), <한·중 완곡어 구성 방식의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경북대학교 대학원).
- 허상희(2010), <한국어 공손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대학원).
- 홍성호(2000), 《교열 리포트》, 커뮤니케이션북스.

- 金莉娜(2006), <漢語·韓國語的委婉語對比分析>,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4期, 延邊大學漢語言文化學院, pp.76~79.
- 南桂仙(2006), <漢韓委婉語對比研究>, 碩士論文(延邊大學).
- 李軍華(2004), <規範委婉語的特征與構成方式>, 《湖北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第24卷 第2期, pp.100~103.
- 常敬宇(1995), 《漢語詞彙與文化》, 北京大學出版社.
- 邵軍航(2008), <委婉語的定義>, 《黃石理工學院學報》第25卷, 第3期, pp.14~19.
- 邵軍航, 范葳葳(2002), <委婉語的分類研究>, 《信陽師範大學學報》第22卷 第1期, 華中科技大學外語系, pp.65~69.
- 束定芳(1989), <委婉語新探>, 《外國語》1989年第3期, 上海外國語學院, pp.28~34.
- 束定芳(1989), <現代漢語中的委婉用語>, 《漢語學習》第2期, 上海外國語學院語言研究所, pp.34~38.
- 楊德峰(1999), 《漢語語文話交際》, 北京大學出版社.
- 吳穎(1996), <關於禁忌語與委婉語的區別與聯繫>, 《洛陽大學學報》第11卷 第1期, 洛陽理工學院, pp.36~39.
- 王立延(1998), 《現代文化語彙叢書-委婉語》, 新華出版社.
- 王會東(2006), <英漢委婉語構造手段的對比研究>, 《唐山學院學報》2006年第3期, 唐山學院外語系, pp.61~62.
- 熊金丰(1991), <委婉語及委婉表達方式>, 《龍岩師專學報》9卷第2期, 哲學与人文科學·外國語言文字, pp.131~136.
- 周淑清(1996), <禁忌語和委婉語>, 佛山大學商學部.
- 陳望道(1932), 《修辭學發凡》, 復旦大學出版社.
- 陳松岑(1989), 《禮貌語言初探》, 商務印書館.
- 陳原(1983), 《社會語言學》, 學林出版社.
- 洪雁(2007), <漢語委婉語詞略論>, 碩士論文(天津師範大學).
- Yao Yan-jun(2014),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비교연구: 단어와 관용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강원대학교 대학원).

참고 사전: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2), 《고려대 중한사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 편찬실.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민연 출판부.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16), 《우리말샘》, 일반 사용자가 어휘를 등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2015), 《에듀월드(Eduworld) 표준중중한사전》(《연세 중중한사전》), 중중한사전편집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 康實振(1997), 《中韓詞典》, 中國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張拱貴(1996), 《漢語委婉語詞典》, 北京語言大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16),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出版.

참고 사이트:

- 한국 검색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https://www.naver.com>
- 중국 검색 포털사이트 바이두(Baidu, 百度), <https://www.baidu.com>
- 네이버 사전(NAVER dictionary) 검색(2000), <https://dict.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2000), <https://terms.naver.com/>